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502

2014년 2월

박사학위논문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차이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백 승 영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차이

Differences in the Degree and Typ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ccording to School Levels and Gender

2014년 2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백 승 영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차이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백 승 영

백승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민성 (인)

위 원 고구려대학교 교수 곽수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희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v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용어의 정의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정서행동장애의 개념 ····· 6
1)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 6
2) 정서행동문제의 정의 ····· 10
3)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 ····· 11
4) 정서행동문제의 출현율 ····· 12
5) 정서행동장애의 특성 ····· 12
2. 학교급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 18
1)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 18
2) 중·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 20
3.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 22
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 25
1)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 25
2)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 27
5. 관련 선행연구 요약 ····· 30

Ⅲ. 연구방법 ····· 39
1. 연구설계 ····· 39
2. 연구대상 ····· 39
3. 연구도구 ····· 42
1) 기초사항 질문지 ····· 42
2) 정서행동문제 질문지 ····· 42
4. 연구절차 ····· 43
5. 자료분석 ····· 44

Ⅳ. 연구결과 ····· 45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차이 ····· 45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 차이 ····· 45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 47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 48
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차이 ····· 49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 차이 ····· 49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 51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 52
3.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차이 ····· 53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 차이 ····· 53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 55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 56
4.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56
1) 학교급별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56
2)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57
3)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58

Ⅴ. 논의 ····· 59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차이 ····· 59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 차이 ····· 59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 60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 62
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차이 ····· 63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 차이 ····· 63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 65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 66
3.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차이 ····· 67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 차이 ····· 67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 68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 69
4.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71
1) 학교급별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71
2)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72
3)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 73
5.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전반적 비교 ····· 74

Ⅵ. 결론 및 제언 ····· 79
1. 결론 ····· 79
2. 제언 ····· 81

참고문헌 ····· 83

부 록 ····· 100

표 목 차

<표 Ⅱ-1>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 7
<표 Ⅱ-2> 관련문헌들의 정서행동장애 의미 ····· 9
<표 Ⅱ-3> 정서행동장애 정의에 따른 출현율 ····· 11
<표 Ⅱ-4> 학교급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요약 ····· 31
<표 Ⅱ-5>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 33
<표 Ⅱ-6>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요약 ····· 35
<표 Ⅲ-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40
<표 Ⅲ-2> 연구대상의 기초사항 ····· 40
<표 Ⅲ-3> K-CBCL 증후군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 43
<표 Ⅲ-4> K-CBCL 증후군척도의 구성 및 진단기준 ····· 43
<표 Ⅳ-1> 학교급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 46
<표 Ⅳ-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분석 ····· 47
<표 Ⅳ-3> 학교급에 따른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 48
<표 Ⅳ-4>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 48
<표 Ⅳ-5>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 50
<표 Ⅳ-6>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의 차이 분석 ····· 51
<표 Ⅳ-7> 학교급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 52
<표 Ⅳ-8>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 52
<표 Ⅳ-9>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 54
<표 Ⅳ-10>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의 차이 분석 ····· 55
<표 Ⅳ-11>학교급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 55
<표 Ⅳ-12>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 56
<표 Ⅳ-13>학교급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분석 ····· 57
<표 Ⅳ-14>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분석 ····· 57
<표 Ⅳ-15>학교급별 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분석 ····· 58
<표 Ⅴ-1>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평균 및 순위 ····· 74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임상적, 교육적 정의의 포함관계 ····· 10
[그림 Ⅳ-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 ····· 46
[그림 Ⅳ-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 ····· 50
[그림 Ⅳ-3]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 ····· 54

ABSTRACT

Differences in the Degree and Typ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ccording to School Levels and Gender

Baek, Seung young
Advisor : Pro. Lee Seung-h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social interest abou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of child and adolescent is getting higher because it tends to become serious. In details on the result of inspection through schools, 16.6%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implied as concern group (students who are needed to be care with consultation or continuous attention-as a result of the first inspection) by the result of inspection which is investigated on the first to sixth grade (2,813,483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13.8% of high school students are indicated as concern group on the first to third grade (1,856,150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in 2012 (MEST, 2013).

In details on the result of inspection via gender, most of the male students experienced more problematic behavior (ex: late in returning home, pornography experience, insult, and etc.) and showed serious problematic behavior than female students did until the late 1990s (Junho Kim, 1995; Eunkyung Kim, 1995), however, the rate of advent on female students' problematic behavior is largely increasing after 2000s (Yeonshim Jang, 2003). As mentioned above, there is a drift towards

increasing emotional behavior problem and it seems to have difference by school grade and gender. However, those researches are just focusing on the particular school group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or most of them don't investigate whole grade of school. That is, there is a necessity of entire investigation for students in school age to inquiry a difference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 via gender and school group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differences of emotional behavior problem through gender and entire school group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is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help not only understanding emotional behavior problem of child and adolescent as well as teaching them but also formulating a plan for prevention which is emphasized recently.

Four research questions are set up based on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research.

1) Is there a difference on the entire behavioral problem of students in school age depending on school group and gender?
2) Is there a difference on the internalized problem of students in school age depending on school group and gender?
3) Is there a difference on the externalized problem of students in school age depending on school group and gender?
4) Is there a degree difference between internalized problem and externalized problem on the students in school age?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t first, the biggest difference in school group and gender on the entire behavioral problem of students was showed up in high school male group but gender was not indicated significant result. Also,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school group and gender.

Secondly, the difference in school group and gender on the internalized problem of students in school age indicated that high school group had the most difference but gender was not implied significant result. Same as the first result,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school group and gender.

In the third result, the biggest difference in school group and gender on the externalized problem of students was showed up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group but significant result was not presented in gender.

Last, there is no degree difference between internalized problem and externalized problem on the students in school age, but externalized problem was presented highly on middle school group.

At the conclusion, though there is no fifth question, this study (emotional behavior problem of child and adolescent on gender and school group) is looked over in discussion to compare this investigation entirely. In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high school male student group indicated the highest emotional behavior problem, whereas higher grade femal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group implied the lowest. Also, the externalized problem is presented higher in middle school female student group than middle school male student group.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2007년(97개 학교 31,187명), 2008년(245개 학교 74,380명), 2009년(470개 학교 126,159명), 2010년(1,126개 학교, 242,055명)에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진 필요학생(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의 정서행동문제 경향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2007년 15.8%, 2008년 12.9%, 2009년 17.0%, 2010년 12.8%로 나타났다(김춘진, 2010, 8. 18).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2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16.3%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 8).

이와 같은 학령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2,813,483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6.6%가 관심군(1차 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 8). 비록 이 자료는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은 발달단계상 사춘기가 도래하는 시기로 신체적 변화를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조수철 등(2006)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정서행동문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년일수록 주요 우울장애와 물질남용 그리고 의존범주의 장애비율이 높다. 또한 정선미와 김진호(2009)

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하므로 신체화증상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한미현, 1996) 초등학교 6학년은 4학년에 비해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선, 2011).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 2012년 전국 중학교 1~3학년 학생 1,812,841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8.3%가 관심군(1차 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 8).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856,150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3.8%가 관심군(1차 검사 결과 학교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 8). 또한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생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정신보건 등에 대한 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감 경험률(일반계교 남학생 27.4%, 여학생 37.7%; 특성화계교 남학생 28.5%, 여학생 39.7%)과 자살생각 경험률(일반계교 남학생 14.3%, 여학생 21.6%; 특성화계교 남학생 14.0%, 여학생 24.3%)이 미국 고등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남학생 21.5%, 여학생 35.9%)과 자살생각 경험률(남학생 12.5%, 여학생 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성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여학생보다 대부분 남학생들이 문제행동(예: 늦은 귀가, 음란물 접촉, 욕설 등)을 경험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김준호, 김은경, 1995) 2000년도 이후에는 여학생들의 문제행동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장연심, 2003).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서행동문제에 있어, 특히 중학생의 경우,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서찬란, 이형실, 2006)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또는 출현율)와 종류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75~85%가 남학생이며(Webber & Plotts,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약 80%가 남학생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조선덕(1990)의 연구에서는 9,787명 중 남학생의 1.97% 그리고 여학생의 1.17%가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종류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반항과 공격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

면 신경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남학생들은 비행, 공격성, 일탈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여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정자, 2003; 장연심, 2003; 전창무, 2000;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Stattin & Kerr, 2000).

이상과 같이 정서행동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연구들 대부분이 특정 학교급(즉,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령기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및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학령기 전체를 한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정서행동장애 또는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연구마다 정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측정도구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학교급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종합하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및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소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래 강조되고 있는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1)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3)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있는가?
   4-1) 학령기 학교급별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있는가?
   4-2) 학령기 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있는가?
   4-3) 학령기 학교급별 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① 학교급: 본 연구에서 학교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을 의미하였다.
- 초등학교 저학년(초저):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3학년을 말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초고): 초등학교 4학년~초등학교 6학년을 말한다.
- 중학생: 중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을 말한다.
-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말한다.

② 성별: 본 연구에서 성별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하였다.
- 남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을 말한다.
-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말한다.

③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 문제정도란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K-CBCL)」(오경자, 김영아, 2011)의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총문제행동척도로 측정되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를 말한다.

④ 정서행동문제 정도: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정도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의 T점수를 말한다.

⑤ 정서행동문제 유형: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유형이란 다음과 같은 구분을 의미한다.
- 정상: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의 T점수가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준)임상: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의 T점수가 6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1)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다루는 장애유형들 가운데 하나인 정서행동장애(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의 경우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다(정대영, 2013). 따라서 관련문헌들(김영한 외, 박은혜, 2011, 이소현, 2012, 정대영, 2013, 전헌선 외, 2012)에서는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로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승희(2012)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설정한 법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정서행동장애를 이해하고 중재 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에 영향을 주어 출현율이 낮게 산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근래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예방 및 조기 중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로 법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동향과도 괴리감이 있다. 또한 이승희(2012)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목적(즉, 누가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 임상적 정의(clinical definition), 교육적 정의(educational definition)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분류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정의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란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한 정의”(이승희, 2012, p. 41)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Ⅱ-1>에 제시되어 있는 미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정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표 Ⅱ-1>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미국「장애인교육법」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i) 정서장애는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행을 미칠 만큼 오랜 기각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A)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무능력. (B) 또래 및 교사와 만족할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함. (C)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이나 감정. (D)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불행감 이나 우울감. (E)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경향. (ii) 정서장애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위 (ⅰ)에 의해 정서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별되지 않는 한,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이나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되는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정서행동장애의 임상적 정의

정서행동장애의 임상적 정의(clinical definition)란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의 진단이라는 임상적 목적으로 가지고 진단체계에 명시한 정의”(이승희, 2012, p. 45)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진단체계인「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명시된 정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DSM-Ⅳ-T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은 정신장애를 “개인에게 나타나서 현재의 고통(예: 고통스러운 증상) 또는 장애(예: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기능영역에서의 손상)를 가져오거나 죽음, 고통, 장애 또는 중요한 자유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적 또는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상”(p. xxxi)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승희, 2012, 재인용).

(3)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education definition)란 “교육전문가들이 정서행동장애의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이승희, 2012, p. 45)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정의나 임상적 정의처럼 법체계나 진단체계와 같은 특정 체계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개념적으로 선호되는 정의인데 이승희(2012)는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양자 모두를 뚜렷이 방해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위험이 있는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p. 45)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의들은 관련 문헌들(예: 강종구 외, 2010; 권요한 외, 2010; 김영욱 외, 2009; 박원희 외, 2009; 유재연 외, 2009; 정동영 외, 2010; 김영한 외, 2012, 추연구, 이정남, 2012, Heward, 2009)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Ⅱ-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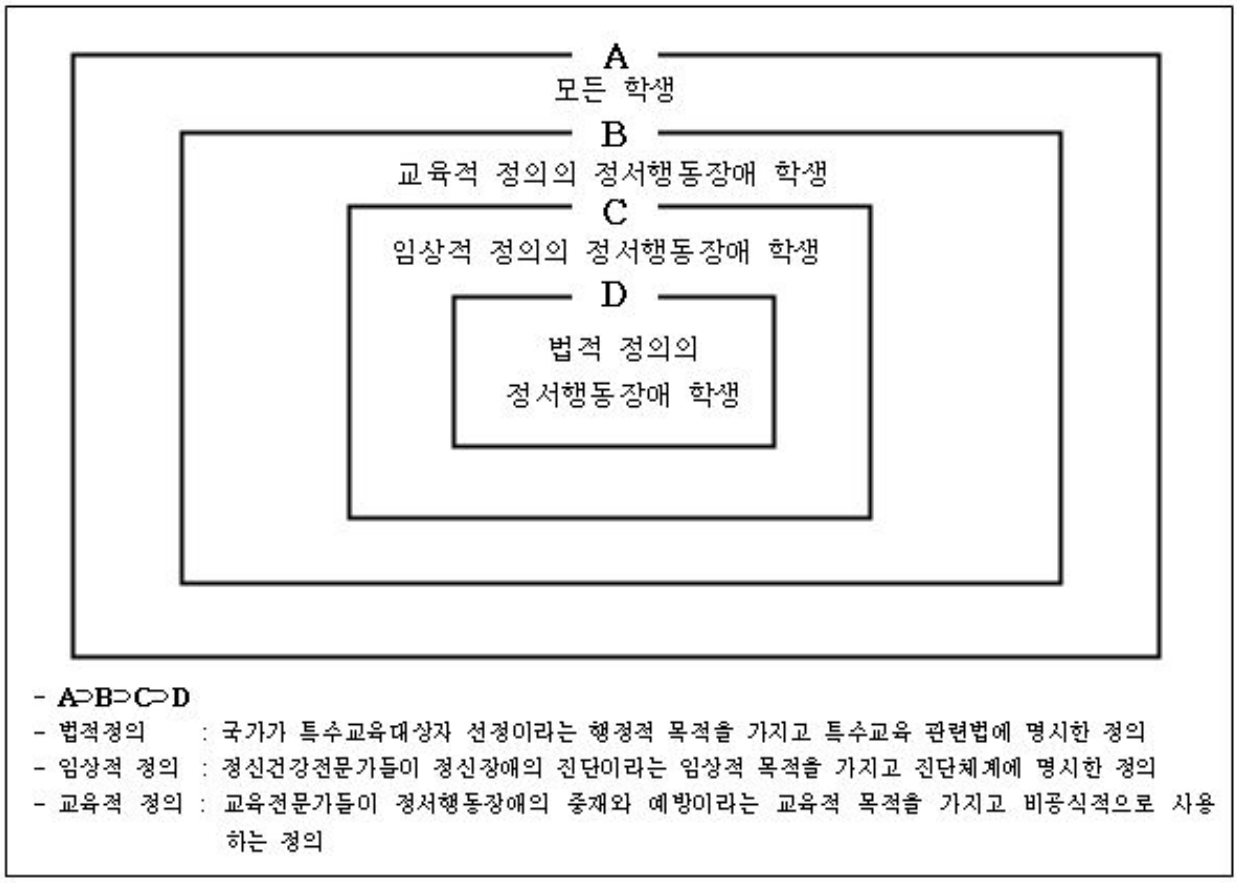
<표 Ⅱ-2> 관련문헌들의 정서행동장애 의미

관련문헌	정서행동장애 의미
강종구 외 (2010)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장애는 아동 그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다를 방해하는 행동으로서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일탈된 행동으로 정의된다.”(p. 243)
권요한 외 (2010)	“정서・행동장애는 개인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다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정도나 강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지칭한다.” (p. 341)
김영욱 외 (2009)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장애는 아동 그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다를 방해하는 행동으로서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일탈된 행동으로 정의한다.”(p. 327)
박원희 외 (2009)	“정서・행동장애(EBD)는 인간의 내적 상태인 정서(emotion)와 외적으로 표출되는 행동(behavior)이 동일 연령집단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 감정조절, 활동수준, 주의집중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p. 338)
유재연 외 (2009)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은 사회적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장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동이다”.(p. 133)
정동영 외 (2010)	“정서 및 행동장애는 정시 및 행동이 또래 집단의 규준이나 기대 수준에서 질적으로 혹은 약적으로, 내적 혹은 외적으로 정상 범주에서 일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p. 240)
김영한 외 (2012)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모두를 방해하는 행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일탈된 아동을 의미한다.”(p. 206)
추연구, 이정남 (2012)	“정서・행동장애는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일탈적 행동으로 정의한다.”(p. 247)
Heward (2009)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은 외현화와 내재화의 두 개의 차원에서 자신의 문화 및 또래 집단의 규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행동에 의해 주로 특정지어진다.“(p. 215)

수정발췌: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률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 연구, 28**(3), 37-58. (p. 46)

2) 정서행동문제의 정의

이승희(2012)는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법적 정의,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로 분류하면서 포함관계도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에 제시된 정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는 정서행동문제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임상적, 교육적 정의의 포함관계

자료출처: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률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 연구, 28**(3), 37-58. (p. 46)

3)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

정서행동장애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출현율이 달라진다(이승희, 2012; Cullinan, 2007; Kaffman & Landrum, 2009). 왜냐하면 [그림 Ⅱ-1]에 보이듯이 정의에 따라 포함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포함범위의 차이는 출현율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법적 정의,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로 분류한 이승희(2012)는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도 법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 임상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 교육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승희(2012)에 의하면 법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은 정부가 제공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고, 임상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이 DSM과 같은 진단체계를 통해 진단한 결과에 의거하여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은 현재 장애를 보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at-risk) 학생들도 포함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방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정서행동장애 출현율의 예를 제시하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에 보이듯이 법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이 가장 낮고 교육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이 가장 높다.

<표 Ⅱ-3> 정서행동장애 정의에 따른 출현률

구분	미국	우리나라
법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	• 0.9% (Heward, 2009)	• 0.037%
임상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	• 5~7% (NLMH, 2001), 10%(APA, 2007)	• 2.7%
교육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	• 20% (APA, 2007)	• 13%

자료출처: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률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 연구, 28**(3), 37-58. (p. 50)

4) 정서행동문제의 출현율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림 Ⅱ-1]에 제시된 정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를 정서행동문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Ⅱ-3>에 제시된 출현율 가운데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에 근거한 출현율을 정서행동문제의 출현율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서행동장애의 특성

(1) 행동적 특성

정서행동장애 판별의 일차적 준거가 행동문제이므로 행동적 특성은 정서행동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이러한 행동문제는 내재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와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Heward, 2009; Rosenberg, Westing, & Mcleskey, 2011).

내재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 행동,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행동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내재화문제를 두려움, 외로움, 사회적 철회, 불안, 우울 등의 정서문제를 뜻하며,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행동문제를 말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미숙하고 위축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반사회적 아동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좀처럼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며, 친구를 사귀고 노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일부 아동은 이유 없이 사물을 두려워하고,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William & Heward, 2007). 내재화 행동문제의 특성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을 보이며,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이 명백히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증상을 보이는 장애로서 정신분열증, 신체화, 강박증, 우울증 등이 있으며(성영민, 2009),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문제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불안은 감정장애, 울기, 굳은 표정, 기타 신체적 불평(두통, 질병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내재화 행동문제를 지닌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 자체를 회피한다(Kirk, Gallagher, Anastasiow, & Colman, 2006). 이러한 내재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반사회적 아동들보다 교사들을 덜 방해 하므로, 위축된 아동들은 확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Walker & Fabre, 1987). 이와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의 열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희생양이 되기 쉽고, 때로는 “왕따(따돌림의 대상)”가 될 수 있고, 우울한 학생들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자살, 학교 수행성 열등, 동료, 교사, 부모 및 형제들과의 관계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내재화 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은 우울증, 수면불안(악몽), 피로증, 지나친 죄의식, 자신을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집중력 열등, 자살충동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대영, 2011, 재인용). Dekker 등(2007)은 아동・청소년기에 우울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우 이후 성인기의 우울과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개입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란 일탈행동을 개념화하는 행동구조의 하나로 공격, 과잉 행동, 불복종, 짜증 및 비행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과소 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행동문제로 정의하였으며, 이처럼 아동이 겪는 문제나 갈등들이 외현화 행동문제로 다양한 행동(비행, 공격성, 과잉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절차상의 결함을 보이며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부모 및 교사들에 의해 발견된다고 하였으며, 외현화문제는 억압된 감정의 행동과, 공격행동 등으로 외부로 명확히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며,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를 지칭한다(장은경, 2000). Achenbach와 Edelbrock(1991)에 따르면,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Forness와 Kavale(2001)는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40～70%가 외현화 행동(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을 보인다고 밝혔다. 외현화 행동문제의 특성은 외향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의 문제를 보이고,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이 있다(성영민, 2009). 반항장애나 품행장애가 형태로 나타나곤 하는 때리기, 싸우기, 친구 놀리기, 소리 지르기, 반항하기, 울

기, 기물파괴하기, 강탈하기 등의 구체적인 행동특성들이 이에 속한다(Waker, Colvin & Ramsey, 1995). 외현화 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반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다. 때리고 싸우고 남을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요구를 거절하고 울고 기물 파괴 강탈하기 등이다(이소현, 박은혜, 2006). 또한, 심한 정서행동장애(외현화 행동문제)를 지닌 학생들의 초기 징후들은 취학전 아동들이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이 잘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은 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며, 이들은 자리이탈, 싸우기, 도벽, 불경스런 행동, 다른 학생의 수업 방해, 물건 파괴하기, 폭력적인 언어, 지나친 주장, 거짓말하기, 감정장애, 공격행동, 학급 분위기저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방해 등과 같은 외현화 장애를 나타낸다(김영한 외 공역, 2012). 일반적으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및 낮은 학업수행을 보인다(Jimerson, Egeland, & Teo, 1999).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피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보여 자신과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신지현, 2009). 또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면 학교 퇴학, 구속, 알코올 남용, 시대에 떨어진 삶 등의 가능성이 높다(Lipsky & Gatner, 1989; Walker et al., 1995). 일부교육자들은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주의집중, 지시 따르기와 같은 이차적 기능의 열등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Smith, 2005).

(2) 사회적 특성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고, 미성숙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으로 때리기, 싸우기, 친구 놀리기, 소리 지르기, 반항하기, 울기, 기물 파괴하기, 강탈하기 등의 행동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관계형성을 잘 하지 못하여 친구가 거의 없고, 놀이 기술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보인다(장성철, 2009).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현재와 미래 적응에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많은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들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며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Cartledge & Milbum, 1995; Gresham, lane,

MacMillan, & Bocian, 1999). 정서행동문제 학생들은 연령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 또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순조롭게 해내기가 어렵다. 또한 심한 정서행동장애(외현화 행동문제)를 지닌 학생들의 초기 징후들은, 우선 취학전 아동들이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이 취학 후에도 잘 사라지지 않는 데에 있다. 이들은 오히려 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더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리이탈, 싸우기, 도벽, 불량스런 행동, 다른 학생의 수업 방해, 물건 파괴, 폭력적 언어, 지나친 주장, 거짓말, 공격적 행동, 학급 분위기 저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 방해 등과 같은 외현화 장애를 나타내며(김영한 외 공역, 2012), 전체적으로 감정조절장애가 뚜렷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및 낮은 학업수행을 보인다(Jimerson, Egeland, & Teo, 1999).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피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보여 자신과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신지현, 2009). 또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면, 학교 퇴학을 비롯하여, 폭력 가담,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적 입건, 알코올 남용, 혹은 고립된 삶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Lipsky & Gatner, 1989; Walker et al., 1995). 일부교육자들은,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성공할 수는 있으나, 주의집중, 지시 따르기와 같은 이차적 기능의 열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회적으로는 실패하게 된다고도 하였다(Smith, 2005).

(3) 인지적 특성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은 지적장애를 가지거나 영재아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낮은 평균의 지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pstein & Sharma, 1989; Wagner, 2000).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지능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auffman, 2005), Mastropieri와 Scrugges(2004)은 정서 및 행동문제 집단의 학업적 및 지적 특성에 관한 25개의 조사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IQ 범위가 공립학교 정서 및 행동장애 표본에서 89.5였고, 정신과 외래환자 표본에서 96.5였다고 보고하였다. 과

거 25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연구에서도 이들의 평균 IQ가 100을 넘지 않았으며(Coleman & Webber, 1988), 정서 및 행동문제 집단은 지능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방명애, 이효신, 2013). 또한,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또래들에 비하여 학력이 2~3년 이상 뒤처지며, 결석률도 높고, 중도탈락률이 높으며 다른 장애 영역의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Lane et al., 2005). 따라서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 가운데 30%만 자기학년 수준의 학업을 성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지적수준은 학습지진아 또는 경도 지적장애아에 속한다(강종구 외, 2010).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평균에서부터 평균보다 약간 낮은

하위평균의 범주에 속하며 상위평균 이상의 지능을 보이는 아동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ncan, Forness, & Hartsough, 1995 & Kauffman, 1997). Valde와 Williamson과 Wagner(1990)는 연구대상 50%가 IQ 71~90 사이의 범주에 속하여 평균 IQ가 86이라고 하였으며, Cullinan과 Epstein(1984)의 연구에서도 IQ의 평균이 92.6으로 나타났고, 정서행동문제가 심할수록 학교에서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eward(2009)는 학생들의 지능이 평균 또는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검사문항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4) 학업적 특성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낮은 학업성취이다(장선철, 2009). 대부분 정서행동문제 아동들이 자기학력의 학업성취수준보다 1년 이상 저하되어 있으며(Cullinan, 2002), 많은 아동들은 읽기(Colenman & Vaughn, 2000; Maughan, Pickles, Hagell, Rutter & Yule, 1996)와 수학성적(Greenbaum et al., 1996)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 이들은 행동문제로 인한 학습문제뿐 아니라 학습기술 및 내용을 숙달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학습장애와 언어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Glassberg, Hooper, & Madison, 1999; Kaiser, Hancock, Cai, Forster, & Hester, 2000). 또한 한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24명의 학생 중에서 38%가 학습장애를 수반하며, 18%는 심각한 학습문제를 가진다고 밝혔다(Fessler, Rosenberg, & Rosenberg, 1991). Mastropieri와 Scruggs(2004)는 정서행동문제 학생들이 모든 학업기능에 결함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어떤 연구에서는 특별히 수학에 더 심각한 결

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정서행동문제 아동이 보이는 특성 중의 또 하나는 잠재적인 지적능력과 상관없이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이다(Cullinan & Sabornie, 2004; Lane, Carter, Pierson, & Glaeser, 2006; Watson & Gross, 2000). 또한,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행동문제는 학업성취를 포함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서적 특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정서지능 등의 지표를 통해 정서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정서행동문제 중에서도 정서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Barry, Lyman, & Klinger, 2002). 우울 및 불안 등이 학업성취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50%이상이 학습장애를 동시에 보이기도 하는데(Glassberg, Hooper, & Madison, 1999), 이것은 학업과 사회적 행동이 상호적인 관계를 지님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이 빈약한 학업성취를 초래하거나 빈약한 학업성취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표현언어나 수용언어에 있어서 약 70%에 달하는 학생들이 장애를 함께 보이기도 한다(Benner, Nelson, & Epstein, 2002). 또한, 대부분의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학업활동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읽기와 수학에 문제를 보일뿐만 아니라 기타과목들의 학습에도 문제를 보이곤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며, 비행이나 범법행위를 표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chwamety & Katsiyannis, 2000). 그러나 Lane(1999)는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학업과제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방해 행동 등의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보고를 제시하였는데, 따라서 교사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학업기술과 교수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이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Culatta, Tompkins, & Werts, 2003).

2. 학교급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1)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초등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미분화상태이기는 하지만 성장발달이 매우 왕성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정성태, 1998). 즉, 초등학생은 뚜렷하고 급속한 신체, 정서, 지적 발달을 경험함으로써 과도기적이고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고영희, 2012).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특징과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대해 보편적인 판단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외부환경에 대한 순발력이나 경험적 대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사춘기 진입시기로 청소년기와 비슷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한영숙, 2006).

이러한 초등학교 시기(또는 아동기)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주와 이승희(2013)에 의하면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가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에 비해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의 임상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민성길 등(1997)은 초등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체 아동의 8.31%가 문제아동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내재화문제인 사회불안과 신체화 증상을 많이 보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학년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미정(2008)은 내재화 행동문제는 4, 5학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6학년에서 증가하고, Achenbach(1991)는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 양상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4~11세, 12세~18세 구분되어 문제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들어 사춘기와 신체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초등학생들에게 외현화 행동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외현화 행동문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미현(1996)은 초등학교 6학년보다 초등학교 4학년이 과잉행동을 더 많은 보이고, 동아일보(2012)에서는 학령기 아

동의 3~15%가 정서행동문제 중의 하나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최진오(2011)의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기채영과 홍경자(2009)는 연령이 증가 하면서 문제행동이 줄어들고, 현온강과 이현정(1999)은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행동문제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신윤희(2007)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며, 위축문제는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영숙(2011)은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나며, 신호임(2004)은 학년에 따라 문제행동의 빈도와 유형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행동이 많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과 관련된 문제행동 보다는 소극적, 회피적 문제행동 들이 많았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김덕임(2007)는 정서행동문제가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화문제인 사회불안과 신체화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친구사귀기, 학업 등 많은 생활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친구문제, 학업문제, 자아존중감 등의 스트레스문제가 정서행동문제를 가져올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윤지선(2011)은 4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6학년이 4학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시기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발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반사회성, 학업 부적응 및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같은 부적응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신유림, 2007). 또한, Peterson(1987)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 6학년이 되면서 문제행동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발생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만성화되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며 결국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Patterson, et al, 2000).

2) 중・고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청소년기는 내적으로 사회적・인지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외적으로는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변화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Lyons, 2004). LaGrange와 White(1985)는 청소년의 연령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보았다. 약 11세~14세를 청소년 초기, 약 15세~18세를 청소년 중기, 그 이후를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고 청소년 초기와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젊은이를 청년이라고 부른다(김대순, 강차연, 2008). 이시기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과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체중의 급격한 변화, 생식기관의 성숙과 성적 상징의 발달 등 매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남학생은 더욱 남자다워지고, 여학생은 더욱 여성다워진다(김혜정, 조복희, 2006).

중・고등학생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된다. 청소년의 신체 변화는 18~19세까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21~22세가 되면 성장에 의한 변화는 끝나게 되며, 신체발달은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민족, 유전인자, 영양상태, 사회적 환경, 생활양식 등에 따라 현저한 개인차가 생긴다(김태련, 이경숙, 1992). 이 시기는 강한 성적 욕구와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며, 이에 관한 적응문제가 큰 정서 및 심리적 부담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둘째, 청소년들은 아동으로, 또는 성인으로 대우 받으면서도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시기라 하여 “주변인” 또는 “중간인”이라고 불리며, 성숙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한 방황을 하게 되면서,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청소년은 그러한 심리적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의 독자성과 개인적 정체감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다(박경숙, 2004). 셋째, 이 시기는 성인기로 진입해가는 전환기이며, 또한 자립해가는 시기이다. 즉, 아동은 자기가 세운 것보다 남이 제시하는 규범 속에서 생활하지만,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이재창 외, 1998). 넷째, 청소년기는 추상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중·고등학교 시기(또는 청소년기)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2~18세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학생의 문제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Rudan et al., 2005). 또한, 여학생의 경우,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반면, 남학생들은 품행장애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강현정, 국승희, 2010; 윤혜미, 박병금, 2005; 이정숙, 최봉실, 2001; Simon, 2002). 곽금주와 문은영(1993)은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정서행동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하고, 고등학교시기에 정서행동문제가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으며(이은아, 정혜정, 2000; 이정미, 양명숙, 2006), 김희화와 김경연(2000)은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수주(2001)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 중 외현화 행동문제보다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고, 문영숙(2008)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시기에 걸쳐서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경험(음주, 흡연)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청소년 정서문행동문제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가 정서적 불안상태에서 일어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사회적 발달 특성상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정서가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20~40%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Hankin & Abramson, 2002). 일반적으로 우울장애는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며(Ford, Goodman, & Melzer, 2003), Ryan와 Stiller(1994)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McGrath와 Repetti(2002)는 우울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매우 비관적일 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 같은 자신과 관련된 수행에 대해 객관적 결과에 관계없이 평가절하 한다고 하였으며, 우울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자동 사고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며, 또한, 우울장애의 경우에 13~15세에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5~18세에 성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kin & Abaramson, 2002; Hankin, Abaramson, Moffity, Mcgee, Silvia, & Angell, 1998).

학교와 관련된 요인의 정서행동문제를 살펴보면 주지영(2009)은 학교에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과 급우를 괴롭히는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을 조사한 연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것 역시 우울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우울집단이 비 우울집단 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학교와 가족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데, 그 중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황혜정, 2003), 학업성적이 비행과 관계가 있어 성적이 높을수록 비행이 덜 하다고 밝히고 있다(Glueck, 1950; Liska & Reed, 1990).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으며(이성식, 2006), Rosenberg 등(197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자아존중감과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Liska와 Reed(1990)은 학업성적이 비행과 관계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관련 요인의 정서행동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이은아, 정혜정, 2000; 윤혜미, 박병금, 2005), 이정숙 외(2007)은 친구관계가 부정적이고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우울에 영향을 많이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우울감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는 성인기의 문제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신체폭력, 범죄행동, 배우자 학대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Horibata, 2006; Kalb & Williams, 2002), Gullone(2000)은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고,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난폭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감정적이나 강압적, 일방적인 명령을 금지해야 하고 문제행동을 나타내면 그 문제행동 속에 타당성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를 청소년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환경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서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된다(Lyons, 2004).

3.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정도(또는 출현율)와 종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또는 출현율)을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로 확인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ullinan, Epstein, & Kauffman, 1984).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75~85%가 남학생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bber & Plotts, 2008). 교육과학기술부(2012)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 학생들의 관심군을 성별로 보면 16.8%(56만 8000), 여학생은 15.7%(48만5000명)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만3000여명 많았다. 반면 주의군

은 여학생이 5.2%(12만2000여명)로 남학생 3.9%(10만1000여명)보다 2만1000여명 많다고 하였다.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등에 성별에 차이가 나타났고, 이중, 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학생은 1.92%, 여학생의 경우 1.50%로 나타났다(구본권 외, 1997). 이처럼 정서행동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서행동문제의 대부분 12세 이후부터는 내재화 행동문제,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외현화 행동문제, 주의력문제, 비행,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윤혜미, 박병금, 2004; Rudan et al., 2005; Tepper et al., 2008; Van Der Ende, & Verhulst, 2005).

이와 관련된 성별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3; 김혜영, 1999; 한미현, 1996; Dekovic & Wissink & Meijer, 2004;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남학생들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여학생보다 더 많이 보이는데(고정자, 2003; 김애경, 2001), 품행장애의 경우에는 4세 이전에 큰 성차를 보이지 않다가 4세부터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4배가량 많이 발병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4.5배 정도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McDermott, 199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유병율은 6.1%로 남학생의 8.3%, 여학생 3.9%로 남학생에서 더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유형별로 부주의형 4.0%, 혼합형 1.1%, 과잉운동-충동성형 1.0%순으로 나타났다(표경식 등, 2001). 비행의 경우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등 성차가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강승호, 정은주, 1999; 김소야자, 1990; 신유황,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많은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행동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유경, 2004; 김혜영, 1999; 노영숙, 1998; 이은아, 정혜정, 2000; 임성택, 2002). 정서행동문제로 확인된 남학생들은 반사회적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불안이나 위축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김진호 외, 2007). 김준호와 김은경(1995)은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시

기에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아동기에서 중학생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중·고교 시절에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폭되다가 고등학교 과정이 되면 감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정미와 양명숙(2006)은 여학생은 내재화 행동문제 남학생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지며, 하은혜와 송동호(2005)는 내재화 행동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나타나며, 우울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사고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최근 남학생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학생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나타났다(김유경, 2004; 문화관광부, 2004; 이경주, 1997; 이정아, 2003). 그러나 박진자(2002)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동문제에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학생에게서 내재화 행동문제과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남학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우울/불안에 있어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Rudan et al., 2005; Tepper et al., 2008; Van Der Ende & Verhulst, 2005, 이수연, 이승희, 2012, 재인용)는 연구결과도 있다. 남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중2부터 고2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행동문제(신체적인 공격)를 더 많이 나타내며, 더 활동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이경님, 2002).

Archer(1996)는 남학생들이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높은 남성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는데, 이 호르몬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증가시키며, 그러한 이유로, 높은 테스토스테론을 가진 성인 남성의 경우 보통의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의 비행, 학대, 폭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민성길(1997)은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어머니가 없을 때 문제아동이 많으며, 또, 외조모와 함께 동거하는 아동에게서 정서행동문제가 많았는데, 남학생에게는 외현화 행동문제(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파괴적 행동)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학생에게는 내재화 행동문제(우울, 불안)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오영경(2010)은 여학생들은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더 많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나타내었으며, 남학생들은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즉,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며, 불안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보인다(김애숙, 1993; 이종희, 1999; 오경자 외, 1991; 윤주화, 1999; 전연진 등, 2002)는 것이다.

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1)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정도(또는 출현율)와 종류에서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또는 출현율)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과잉 행동적) 양상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내재화 행동문제(두려움과 걱정)가 많다고 하였다(Lahey et al., 2000). 보건복지부가 전국 94개교 초등학생 7,700명에게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는 25.8%가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정서문제와 반항 및 난폭행위 등의 정서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8). Sourander와 Helstela(2005)는 정서행동문제는 보고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내재화 행동문제나 외현화 행동문제는 모두 남학생에게서 나타났으며, 내재화의 문제의 경우 여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초등학들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는 Peterson(1987)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 6학년이 되면서 문제행동이 급격히 상승하고, 윤지선(2011)에 의하면, 4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학년별로는, 6학년(초고)이 4학년(초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이정미와 양명숙(2006)은 정서행동문제에 있어서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서미정(2008)에 의하면, 남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천천히 증가하는 반면, 여학생은 초등학교 4~5학년까지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종류를 살펴보면, 강지흔과 박성연(2005)은 정서행동문제 아동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았으며, 문제아동의 증후학적 특징으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에게서는 파괴적 공격성과 반항행동과, 여학생에게서는 우울 및 불안 정서장애가 많았다고 밝혔다. 현온강과 이현정(1999)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잉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나타났으며,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행동문제가 전체적으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경혜(2001)는 공격성과 비행, 그리고 과잉행동이나 산만함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등의 내재화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오경자, 1991; 윤맹렬, 1995; 전연진, 2002; 현온강, 이현정, 1999; Lahey, 2000). 또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권영옥(1998)에 의하면, 과잉행동영역에서 남학생의 경우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여학생의 경우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 한유진(2006)은 적대공격과 신체공격에서는 남학생의 공격성이 높지만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신윤희 등(2007)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외현화문제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학년보다 고학년 집단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다 더 신체적 및 언어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공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Huttunen, Salem, & Lagerspetaz, 1996). 김애숙(1993)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행동문제(공격적)가 큼을 밝혔고, 윤맹렬(1995)의 연구 역시, 공격성 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에게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친구문제, 가족과의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친구문제의 요인으로 친밀감 영역(친구관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 여학생의 친구관계의 질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계지향성(친밀감, 친구관계)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2). 가족요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와 가정환경에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구와 주변 환경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한철(2001)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최재영(2006)은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성별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성별차이는 없다고 하였고, 스트레스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별 수준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장백용, 2000). 즉, 남학생들은 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과잉행동, 공격성, 위축성 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2)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정도(또는 출현율)와 종류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또는 출현율)을 살펴보면 국내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율에 대한 연구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2,203명을 대상으로 우울척도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남학생의 경우 18.4%, 여학생 20.7%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21.4%, 여학생 23.8%,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남학생 43.8%, 여학생 49.6%였다. 즉, 우리나라에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청소년이 많다고 하였다(조성진 외, 2001). 또한, 외현화 행동문제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서울시소아청소년보건센터(2006)가 2005년에 서울지역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학생과 부모를 대상)의 유병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7%가 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와 같은 행동장애 나타난다고 밝혔다(조수철 외, 2006).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는 요인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다른 위험요인을 특징으로 하는데 남학생은 초기 아동기의 건강문제, 발달문제, 품행문제가 중요했고, 여학생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신체상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elkonen, Marttunen, Pulkkinen, & Laippala, 1997). 해외선행연구에 따르면 불리불안 장애와 일반화된 불안 장애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chenbach, 1991), 우울증은 11세 이전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여학생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 성비가 2:1에서 3:1에까지 이른다고 보고된바 있다(Angold & Costello, 1999). 불안과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고 여성들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xon, Howie, & Starling, 2004). Hankin과 Abramson(2002)는 우울장애의 경우 13~15세에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5세~18세에 성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아동기 불안 증세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울장애의 출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에, 남학생은 아동기 불안증세가 있었던 학생의 우울장애 출현율이 1.5배 높았으며(Garber & kaminski, 2002), Teri(198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결

과 27%의 학생이 중간 정도의 우울을 보였으며, 5%의 학생이 심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chel, Nolan과 Willson(1987)은 우울한 여학생에게는 내향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우울한 남학생에게는 외향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Obeidallah와 Earl(1999)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하지 않은 여학생은 우울증이 있는 여학생들이 재산범죄와 대인범죄를 더 많이 범했고, Udry와 Talbert(1988)는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면,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도록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 패턴이 남학생들과는 다르다고 보고하였으며, Hinshaw(1992)는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와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낮은 학업 성취는 좌절감을 가져와 문제행동의 발생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고정자, 2003, 김주분, 1994, 윤혜미, 박병금 2004),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가족, 친구, 학업문제를 들 수 있는데, 가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관련 요인에 있어서도 성별의 차이를 나타냈다. 윤혜미, 박병금(2004).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와의 유대를 더욱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이나 주말부부 가정보다 이혼가정의 아동이 또 이혼가정보다는 갈등가정의 아동이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하였으며, 이은혜와 최정아(2008)는, 보모의 강압적 양육이나 학대는 여학생의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영희와 이정미(2004)는 부모간의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폭력행위는 모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반사회성과 비행)와 내재화 행동문제(불안과 위축)를 유발하고, 그 중, 내재화문제는 여학생에게서, 외현화문제는 남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관계에서도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Funk, 1999). 이처럼 과거에는 남학생의 공격성이 여학생의 공격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남학생을 중심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격성 연구가 이루어졌으나(Crik & Grotpeter, 1996), 서찬란, 이형실(2006)은, 최근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일탈행동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퍼머(perm)나 염색, 화장, 교복변형 착용,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 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최영심(2000)은 중학교 여학생들이 품행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더욱이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여학생들

의 행동문제도 시급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종류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고정자, 2003; 김주분, 1994; 윤혜미, 박병금, 2004; 장연심, 2003).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이며(고정자, 2003; 고현자, 2000; 김유경, 2004; Lahey, 2000), 공격성이 남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인 공격에 더 익숙하고, 더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훨씬 더 또래집단의 소속을 조작하거나, 다른 아동들에 대해 배척이나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보가, 임지영, 1999; Crick, Casas, & Ku, 1999; Crick & Grotpeter, 1996). 또한, 또래에 의해 거부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uffer, Stams, & Van Ijendoorn, 2004), Stattin과 Kerr(2000)도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여학생의 경우는 내재화 행동문제(불안이나 신체증상)를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여학생에게는 내재화 행동문제, 남학생에게는 외현화 행동문제가 나타나는데 특히 우울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orchel과 Nolan과 Willson(1987)은 우울한 여학생에게는 내향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우울한 남학생에게는 외향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행동 간에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Zalecki와 Hinshaw(2004)에 따르면 여학생은 험담이나 소문 퍼뜨리기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내기 쉽고, 불안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 홍태경와 류준혁(2010)은 우울, 불안이 많을수록 청소년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김준호와 이동원(1996)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적 문제와 외모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스트레스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내재화문제(우울성향)도 스트레스나 행동문제 무력감, 정서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1993). 또한, 학년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명선(2004)은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또래와의 관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경님(2002)은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우울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사고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하은혜, 송동호, 2005).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유형은 공격성, 불안, 비행, 사회적 위축, 우울 등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높으며, YSR과 K-CBCL 모두에서 여학생들은 내재화문제에서 일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외현화문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외현화문제에 해당하는 소척도 중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오경자, 이혜련 외, 1990).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특성과 관련하여 학업성취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김선애, 1999). Shapiro와 Siegel과 Scovill과 Hays(1998)는 청소년기가 새로운 역할의 시도에 몰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발생에 취약한 시기임을 강조하였고, 그 밖에 다른 학자들도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 및 물질 남용 행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Buchanan, Eccles, & Becker, 1992; Hinshaw, 1992).

5. 관련 선행연구 요약

앞서 '2. 학교급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3.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에서 살펴본 관련 선행연구들 가운데 특히 본 연구과 관련이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대상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면 각각 <표 Ⅱ-4>, <표 Ⅱ-5>, <표 Ⅱ-6>과 같다.

<표 Ⅱ-4> 학교급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가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외현화문제(비행, 과잉행동)에 비해 내재화문제(불안, 우울, 신체화)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음.	김은주, 이승희 (2013)
	초등학교 (4~6학년)	정서행동문제는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내재화문제인 사회불안과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보였음.	김덕임(2007)
	초등학교 (5, 6학년)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정서행동문제는 적게 나타남.	문영숙(2011)
	초등학교 (4~6학년)	내재화 행동문제는 4, 5학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6학년에서 증가함.	서미정(2008)
	초등학교 (4~6학년)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저학년일수록, 위축문제는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윤희(2007)
	초등학교 (4~6학년)	4학년~6학년의 문제행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았음.	신호임(2004)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집단별 정서행동문제(내재화, 외현화문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정숙 외(2009)
	초등학교 (4~6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격성을,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음.	최진오(2011)
	초등학교 (1~6학년)	정서행동문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줄어들었음.	기채영, 홍경자(2009)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교 6학년보다 초등학교 4학년이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였음.	한미현(1996)

<표 Ⅱ-4>(계속됨)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초등학교 (1~6학년)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행동문제가 전체적으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많이 나타남.	현온강, 이현정(1999)
	초등학교 (1~6학년)	남녀 아동 모두 5, 6학년이 되면서 문제행동이 급격히 상승함.	Peterson(1987)
중·고등 학생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시기에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함.	곽금주, 문은영(1993)
	중, 고등학교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남.	김수주(2002)
	중학교 (1~3학년)	중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정서행동문제가 심함.	김희화, 김경연(2000)
	고등학교 (1~3학년)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시기에 걸쳐서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경험(음주, 흡연)이 더 많이 나타남	문영숙(2008)
	중,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함.	이은아, 정혜정(2000)
	고등학교 (1~3학년)	고등학교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내재화 행동문제의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남.	이해경(2013)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화 행동문제인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함.	Ford, Goodman, Melzer (2003)
	중, 고등학교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고,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난폭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함.	Gullone(2000)

<표 Ⅱ-5>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정도 (또는 출현율)	학령기 (초,중,고)	정서장애의 출현율은 36%임.	국립특수교육원 (1999)
	학령기 (초,중,고)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군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6.8%(56만8천), 여학생은 15.7%(48만5천)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만3천여명 많았음. 반면 주의군은 여학생이 5.2%(12만2천)로 남학생(3.9%,10만1천)보다 2만1천여명 많았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령기 (초,중,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은 9,588명(12.9%)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910명(72.1%)이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1,975명(2.7%)이 심각한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김춘진(2009)
	학령기 (초,중,고)	여학생보다(4.9%)보다는 남학생에게서(8.2%)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게 나타남.	민성길외 (1997)
	학령기 (초,중,고)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 비행청소년의 반항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행동 학생은 11.6%, 정서행동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임.	보건복지부(2006)
	학령기 (중,고등학교)	중학생 우울의 경우, 남학생 18.4%, 여학생 20.7%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21.4%, 여학생 23.8%,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남학생 43.8%, 여학생 49.6%로 나타남.	조성진 외(2001)
	학령기 (초등학교)	ADHD 초등학생의 경우, 유병율은 6.1%로 남학생 8.3%, 여학생 3.9%로 남학생에서 더 높은 유병율을 보였음.	표경식 등(2001)
	학령기 (초,중,고)	우울증은 11세 이전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여학생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병율의 성비가 2:1~3:1에까지 달함.	Angold & Costello (1999)
	학령기 (초,중,고)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출현율은 학령인구 6~10%로 나타남.	Kauffman(1981)
	학령기 (초,중,고)	미국의 경우,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75~85%가 남학생임.	Webber & Plotts(2008)

<표 Ⅱ-5> (계속됨)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종류	학령기 (초,중,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행동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학생에게 많이 보임.	고정자(2003)
	학령기 (초,중,고)	여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시기에 내재화문제가 증가하다가 고등학교시기에 감화됨.	김준호, 김은경 (1995)
	학령기 (중,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함.	박진자 (2002)
	학령기 (중, 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 중2부터 고2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함.	이경님(2002)
	학령기 (초,중,고)	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오경자, 김영아(2011)
	학령기 (초,중,고)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관련이 있으며, 12세에서 16세 청소년 문제행동유형은 공격성, 불안, 비행, 사회적 위축, 우울 등으로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오경자, 이혜련 외 (1990)
	학령기 (초, 중)	중학교 여학생들은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더 많은 외현화문제가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 경험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음.	오영경(2007)
	학령기 (초, 중)	여학생은 내재화 행동문제, 남학생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였음.	이정미, 양명숙(2006)
	학령기 (초,중,고)	여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Dekovic, Wissink & Meijer(2004)

<표 Ⅱ-6>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초등학생/성별	초등학생 (4~6학년)	정서행동문제 아동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증후학적 특징으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에게서 파괴적 공격성 반항행동, 여학생에서는 우울 및 불안 정서장애가 많았음.	강지흔, 박성연(2005)
	초등학생 (1~6학년)	과잉행동영역에서 남학생의 경우 10세 아동이 12세 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여학생의 경우 12세 아동이 10세 아동보다 과잉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우울성향에서는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음.	권영옥(1998)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행동문제(공격적)가 더 많이 나타났음.	김애숙(1993)
	초등학생 (4~6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은 5학년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행동이 더 높이 나타남.	김정숙 외(2009)
	초등학생 (1~6년)	초등학생들의 경우, 외현화문제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학년보다 고학년 집단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높았음.	신윤희 외(2007)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천천히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초4~5학년까지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함.	서미정 (2008)
	초등학생 (1~6년)	외현화 행동문제인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윤맹렬(1995)
	초등학교 (1~6학년)	공격성과 불안 그리고 과잉행동이나 산만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별의 차이가 높았음.	이경혜 (2001)
	초등학교 (3~6학년)	3, 5학년 연구에서, 친구관계의 질이 남학생에게 보다 여학생에게 더 중요하며, 친구관계로 인해 여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나타남.	이은혜, 고윤주(1999)

<표 Ⅱ-6>(계속됨)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초등학생 (1~6년)	정서행동문제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안 보임.	이정미, 양명숙(2006)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와 가정환경에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구와 주변 환경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한철(2001)
	초등학생 (4, 5학년)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보인다고 함.	전연진(2002)
	초등학생 (4~6학년)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남학생에게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격성이 나타났음.	최진오(2011)
	초등학생 (4~6학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잉행동과 위축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불안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보임.	현온강, 이현정(1999)
	초등학교 (1~6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다 더 신체적 및 언어적으로 외현화 행동문제(공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Crick & Grotperter(1995)
	초등학교 (1~6학년)	문제발생에 있어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남학생의 경우 과잉행동적 양상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음.	Lahey et al., (2000)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모두 5, 6학년이 되면서 문제행동이 급격히 상승함.	Peterson(1987)
	초등학교 (1~6학년)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모두 남학생에게서 나타나고, 내재화문제의 경우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함.	Sourander, Helstela (2005)

<표 Ⅱ-6>(계속됨)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중·고등학생/성별	중, 고등학교	우울과 불안 같은 내면화문제는 여학생이 더 많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는 남학생이 더 많이 보였음.	고정자(2003)
	중학교 (1~3학년)	정서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고, 더 심각한 수준의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남	김유경(2004)
	중,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시기에 걸쳐서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이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변화가 없었음.	김현실(2002)
	중학교 (2~3학년)	성별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게서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음.	서찬란, 이형실(2006)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의 문제행동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었음.	이경민 (2005)
	중학교 (1~3학년)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연심(2003)
	중학생 (1~3학년)	공격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인 공격을 더 많이 나타내며 더 활동적인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타인에 대해 배척과 따돌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냄.	최보가, 임지영(1999)
	중학생 (1~3학년)	중학교 여학생이 품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계속 증가함.	최영심(2000)

<표 Ⅱ-6>(계속됨)

구분	대상	정서행동문제	문헌
중·고등학생 / 성별	중학교 (1~3학년)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는,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의 성별간 차이가 2, 3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현명선(2004)
	중, 고등학교	내재화 행동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급격하게 증가하며, 우울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사고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났음.	하은혜, 송동호 (2005)
	중, 고등학교	불안장애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chenbach (1991)
	중, 고등학교	불안과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고 여학생들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Dixon, Howie & Starling(2004)
	중, 고등학교	우울장애의 경우에 13~15세에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5~18세에 성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Hankin & Abramson (2002)
	중, 고등학교	내재화 행동문제(우울증)이 있는 여학생들이 재산범죄와 대인범죄를 더 많이 범했음.	Obeidallah & Earl(1999)
	중, 고등학교	내재화 행동문제(불안이나 신체증상)을 많이 보이고, 남학생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함.	Stattin & Kerr (2000)
	중, 고등학교	우울한 여학생에게는 내향적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며, 남학생에게는 외향적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	Worchel, Nolan & Willson(1987)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G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단계 편의표집(학교급로 한 학교씩 편의표집한 후 다시 학년별로 한 학급씩 편의표집)을 통하여 총 345명(초등학교 180명,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6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는 공·사립간 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공립학교로 한정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맞추기 위하여 남·녀 공학으로 한정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90부, 초등학교 고학년 90부, 중학생 105부, 고등학생 60부의 설문지(부모작성용)를 배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57부(63.3%), 초등학교 고학년 62부(68.9%), 중학생 100부(95.2%), 고등학생 45부(75.0%), 총 264부(76.5%)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264부는 모두 최종분석 자료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설문지 배부와 회수현황은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의 기초사항은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저학생 57명(21.6%), 초고학생 62명(23.5%), 중학생 100명(37.9%), 고등학생 45명(17.0%)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130명(49.2%), 여학생 134명(50.8%)이었다. 그리고 설문지(부모작성용) 작성자로는 부 18명(6.8%), 모 264명(93.2%)으로 나타나 설문지 작성자는 대부분 어머니였다.

<표 Ⅲ-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구분	배부(*n*)	회수(*n*)	회수율(%)
초저	90	57	63.3
초고	90	62	68.9
중	105	100	95.2
고	60	45	75.0
전체	345	264	76.5
최종 분석자료	264		

<표 Ⅲ-2> 연구대상의 기초사항

특 성	구 분		*n*(%)	계(%)
학교급	초저	1학년	20(35.1)	57(100.0)
		2학년	16(28.1)	
		3학년	21(36.8)	
	초고	4학년	19(30.7)	62(100.0)
		5학년	17(27.4)	
		6학년	26(41.9)	
	중	1학년	30(30.0)	100(100.0)
		2학년	35(35.0)	
		3학년	35(35.0)	
	고	1학년	21(46.7)	45(100.0)
		2학년	24(53.3)	
	전체	초저	57(21.6)	264(100.0)
		초고	62(23.5)	
		중	100(37.9)	
		고	45(17.0)	

<표 Ⅲ-2> (계속됨)

특 성	구 분		n(%)	계(%)
성별	초저	남	31(54.4)	57(100.0)
		여	26(45.6)	
	초고	남	35(56.5)	62(100.0)
		여	27(43.5)	
	중	남	41(41.0)	100(100.0)
		여	59(59.0)	
	고	남	23(51.1)	45(100.0)
		여	22(48.9)	
	전체	남	130(49.2)	264(100.0)
		여	134(50.8)	
설문지 작성자	초저	부	5(8.8)	57(100.0)
		모	52(91.2)	
	초고	부	4(6.5)	62(100.0)
		모	58(93.5)	
	중	부	7(7.0)	100(100.0)
		모	93(93.0)	
	고	부	2(4.4)	45(100.0)
		모	43(95.6)	
	전체	부	18(6.8)	264(100.0)
		모	246(93.2)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부모작성용)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초사항 질문지와 정서행동문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기초사항 질문지와 정서행동문제 질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사항 질문지

기초사항 질문지는 3개 항목(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학년)으로 구성되었다.

2) 정서행동문제 질문지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연구대상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K-CBCL)」(오경자, 김영아, 2011)을 사용하였다. K-CBCL은 크게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문제행동척도는 증후군척도, DSM 진단척도, 문제행동 특수척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증후군척도만 사용하였다.

증후군척도에는 9개의 하위척도(불안/우울, 위축/불안,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은 내재화문제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은 외현화문제로 분류되어 상위척도인 내재화척도와 외현화척도를 구성하고 있고 9개 하위척도 전체는 총문제행동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K-CBCL의 증후군척도는 1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6개월 내에 자녀가 각 문항에 서술된 행동을 보였는지를 부모가 판단하여 3점 척도(0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3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평정하여 12개 척도별(9개 하위척도,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총문제행동척도)로 T점수(M=50,

SD=10)를 제공한다. K-CBCL 증후군척도의 신뢰도는 <표 Ⅲ-3>에 제시되어 있으며 증후군척도의 구성 및 진단기준은 <표 Ⅲ-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3> K-CBCL 증후군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구분 / 척도	신뢰도(Cronbach α)		
	한국판 (N=2,616)	미국판 (N=3,210)	본연구 (N=264)
총행동문제	0.78	0.91	0.96
내재화문제	0.86	0.90	0.90
외현화문제	0.87	0.94	0.95

<표 Ⅲ-4> K-CBCL 증후군척도의 구성 및 진단기준

구성			진단기준		
척도명		문항수	정상	준임상	임상
증후군 척도	총행동문제	120	(T < 60)	(60 ≤T <64)	(T ≥ 64)
	내재화문제	32	(T < 60)	(60 ≤T <64)	(T ≥ 64)
	외현화문제	35	(T < 60)	(60 ≤T <64)	(T ≥ 64)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편의표집된 11개 학급 학생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1년 11월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각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를 만나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학생편에 부모님께 보내어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게 한 후 다시 등교하는 학생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부 후 2~3주 후에 연구자가 직접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방문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18.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학교급에서 주효과가 있을 경우 사후분석(Scheffé)을 실시하였고, 총행동문제 유형이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학교급에서 주효과가 있을 경우 사후분석(Scheffé)을 실시하였고, 내재화문제 유형이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학교급에서 주효과가 있을 경우 사후분석(Scheffé)을 실시하였고, 외현화문제 유형이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령기 학교급별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학령기 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그리고 학령기 학교급별 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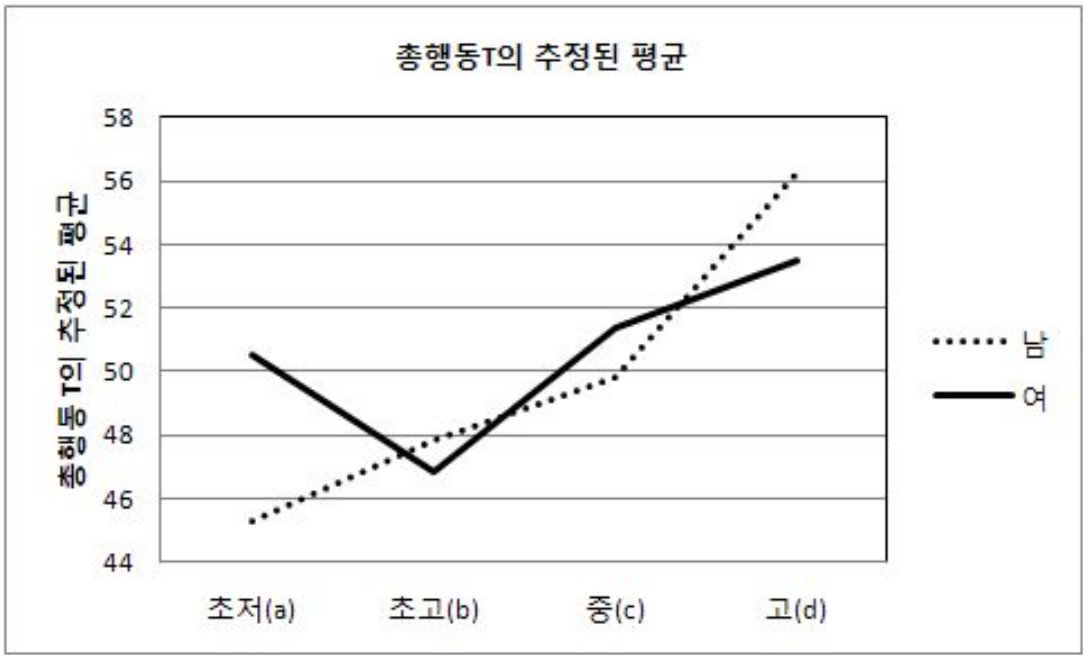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차이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 차이

먼저,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와 같다. <표 Ⅳ-1>에 보이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5.29와 14.58,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7.83와 9.31, 중학교 남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9.80와 9.23, 고등학교 남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6.26과 11.54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0.50과 9.90,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6.85와 9.56, 중학교 여학생의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1.41와 13.06, 고등학생 여학생의 총행동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3.50과 9.81이었다. 총행동문제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으로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6.26과 11.54이었고, 총행동문제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 집단으로 총행동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45.29와 14.58이었다. <표 Ⅳ-1>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표 Ⅳ-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학교급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초저(a)	*M*	45.29	50.50	47.66
	SD	14.58	9.90	12.82
	n	31	26	57
초고(b)	*M*	47.83	46.85	47.40
	SD	9.31	9.56	9.36
	n	35	27	62
중(c)	*M*	49.80	51.41	50.75
	SD	9.23	13.06	11.61
	n	41	59	100
고(d)	*M*	56.26	53.50	54.91
	SD	11.54	9.81	10.70
	n	23	22	45
전체	*M*	49.34	50.66	50.01
	SD	11.60	11.42	11.50
	n	130	134	264



[그림 Ⅳ-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

다음으로, 총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분석결과는 <표 Ⅳ-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6> 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총행동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4.713, p < .01) 사후분석(Scheffé)결과 고등학교 집단이 초저, 초고 집단보다 총행동문제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2> 학교급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정도의 차이 분석

분산원	*SS*	*df*	*MS*	*F*	*p*	사후분석
학교급	1788.688	3	596.229	4.713**	.003	a, b< d
성별	35.444	1	35.444	.280	.597	--
학교급×성별	477.907	3	159.302	1.259	.289	--
오차	32385.877	256	126.507	--	--	--

**p < .01.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3>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총행동문제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10.664, p < .05). 즉, 학교급에 따라 (준)임상 유형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집단에서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중학생 집단 17.0%, 초저 집단 10.5%, 초고 집단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 학교급에 따른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학교급	총행동문제 유형				전체		χ^2	p
	정상		(준)임상					
	n	%	n	%	n	%		
초저	51	89.5	6	10.5	57	100.0	10.664*	.014
초고	56	90.3	6	9.7	62	100.0		
중	83	83.0	17	17.0	100	100.0		
고	31	68.9	14	31.1	45	100.0		
계	221	83.7	43	16.3	264	100.0		

*p < .05.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4>에 보이듯이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성별에 따른 총행동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성별	총행동문제 유형				전체		χ^2	p
	정상		(준)임상					
	n	%	n	%	n	%		
남	108	83.1	22	16.9	130	100.0	.076	.457
여	113	84.3	21	15.7	134	100.0		
계	221	83.7	43	16.3	2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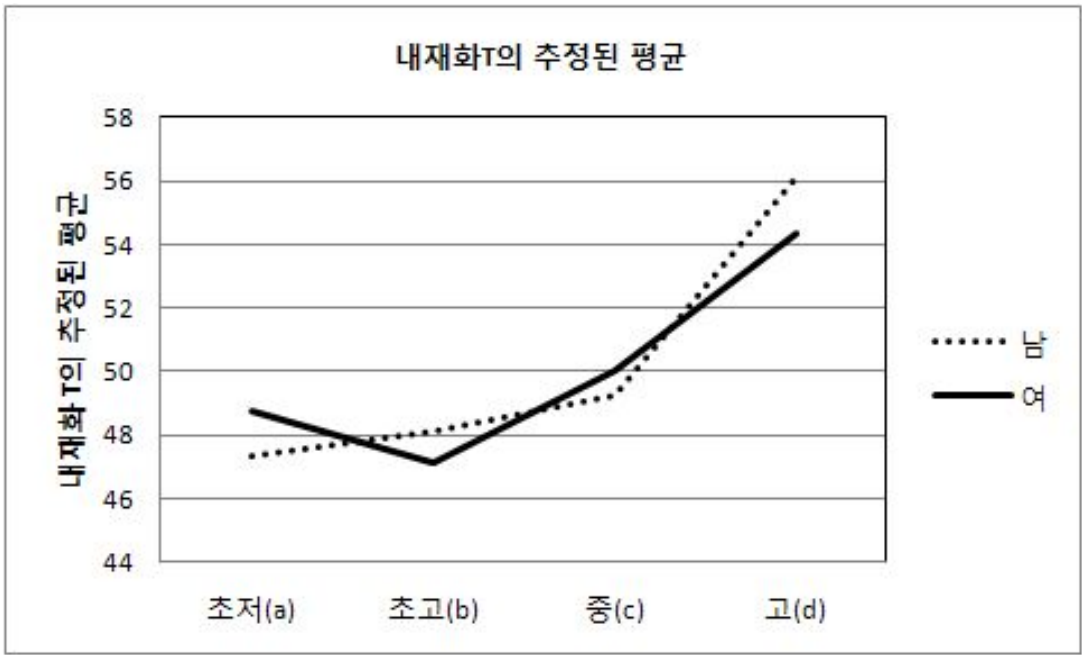
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차이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 차이

먼저,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5>과 같다. <표 Ⅳ-5>에 보이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7.35와 8.85,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8.14와 9.81, 중학교 남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9.29와 8.36, 고등학교 남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1.63과 11.56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8.77과 8.29,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7.15와 9.25, 중학교 여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0.02와 11.97, 고등학교 여학생의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4.36과 9.26이었다. 내재화문제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으로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1.63과 11.56이었고, 내재화문제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집단으로 내재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47.15와 9.25였다. <표 Ⅳ-5>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2]과 같다.

<표 Ⅳ-5>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학교급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초저(a)	*M*	47.35	48.77	48.00
	SD	8.85	8.29	8.55
	n	31	26	57
초고(b)	*M*	48.14	47.15	47.70
	SD	9.81	9.25	9.50
	n	35	27	62
중(c)	*M*	49.29	50.02	49.72
	SD	8.36	11.97	10.59
	n	41	59	100
고(d)	*M*	56.13	54.36	55.26
	SD	11.56	9.26	10.42
	n	23	22	45
전체	*M*	49.73	49.91	49.82
	SD	9.87	10.52	10.19
	n	130	134	264



[그림 Ⅳ-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

다음으로, 내면화문제 정도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분석결과는 <표 Ⅳ-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6> 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내재화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6.015, p < .01) 사후분석(Scheffé)결과 고등학교 집단이 초저, 초고, 중학교 집단보다 내재화문제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문제 정도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6>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정도의 차이 분석

분산원	*SS*	*df*	*MS*	*F*	*p*	사후분석
학교급	1790.381	3	596.794	6.015**	.001	a,b,c < d
성별	1.455	1	1.455	.015	.904	--
학교급×성별	91.063	3	30.354	.306	.821	--
오차	25398.576	256	99.213	--	--	--

**p < .01.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7>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내재화문제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10.881, p < .05). 즉, 학교급에 따라 (준)임상 유형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집단에서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초고 집단 12.9%, 중학생 집단 12.0%, 초저 집단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7> 학교급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학교급	내재화문제 유형				전체		χ^2	p
	정상		(준)임상					
	n	%	n	%	n	%		
초저	51	89.5	6	10.5	57	100.0	10.881*	0.01
초고	54	87.1	8	12.9	62	100.0		
중	88	88.0	12	12.0	100	100.0		
고	31	68.9	14	31.1	45	100.0		
계	224	84.8	40	15.2	264	100.0		

*$p < .05$.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8>에 보이듯이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성별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성별	내재화문제 유형				전체		χ^2	p
	정상		(준)임상					
	n	%	n	%	n	%		
남	112	86.2	18	13.8	130	100.0	.339	.341
여	112	83.6	22	16.4	134	100.0		
계	224	84.8	40	15.2	2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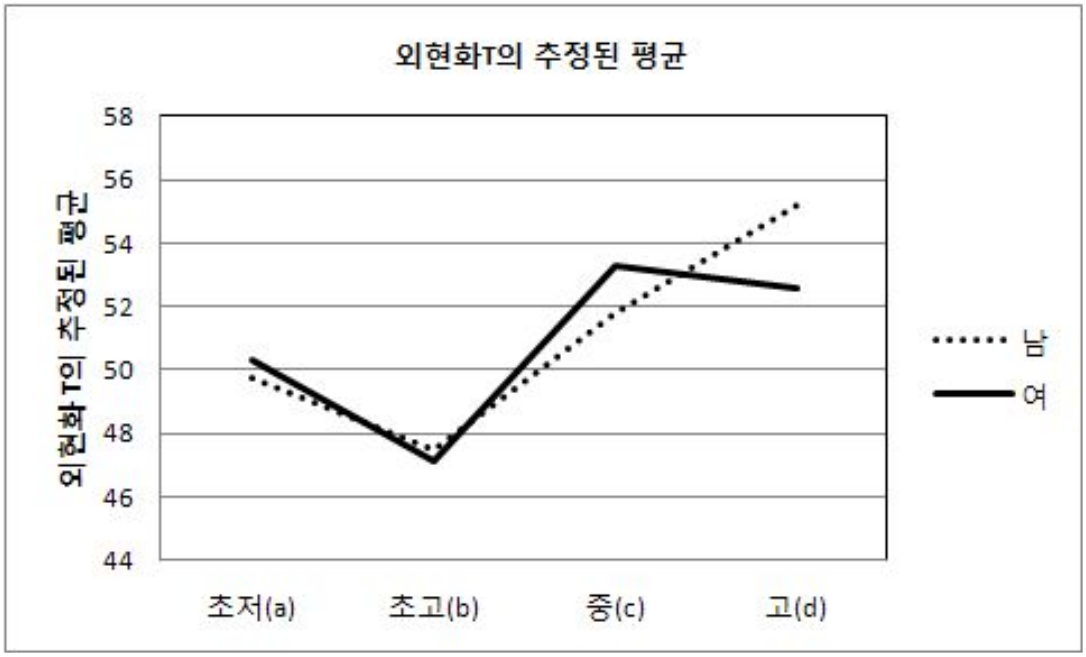
3.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차이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 차이

먼저,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에 보이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9.77와 9.70,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7.46와 9.76, 중학교 남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1.80와 8.31, 고등학교 남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5.22와 10.74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0.35와 9.58,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7.15와 9.68, 중학교 여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3.29와 11.79, 고등학생 여학생의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2.55와 9.99이었다. 외현화문제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으로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5.22과 10.74이었고, 외현화문제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집단으로 외현화문제 정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47.15와 9.68이었다. <표 Ⅳ-9>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3]과 같다.

<표 Ⅳ-9> 학교급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학교급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초저(a)	*M*	49.77	50.35	50.03
	SD	9.70	9.58	9.57
	n	31	26	57
초고(b)	*M*	47.46	47.15	47.32
	SD	9.76	9.68	9.639
	n	35	27	62
중(c)	*M*	51.80	53.29	52.70
	SD	8.31	11.79	10.49
	n	41	59	100
고(d)	*M*	55.22	52.55	53.91
	SD	10.74	9.99	10.34
	n	23	22	45
전체	*M*	50.75	51.36	51.06
	SD	9.76	10.84	10.30
	n	130	134	264



[그림 Ⅳ-3]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

다음으로, 외현화문제 정도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분석결과는 <표 Ⅳ-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10> 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외현화문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4.839, p < .01) 사후분석(Scheffé)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이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보다 외현화문제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문제 정도에 대한 학교급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10>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정도의 차이 분석

분산원	*SS*	*df*	*MS*	*F*	*p*	사후분석
학교급	1488.264	3	496.088	4.839**	.003	b < c, d
성별	3.214	1	3.214	.031	.860	--
학교급×성별	138.268	3	46.089	.450	.718	--
오차	26243.305	256	102.513	--	--	--

**p < .01.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11>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학교급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학교급	외현화문제 유형				전체		χ^2	*p*
	정상		(준)임상					
	n	%	*n*	%	*n*	%		
초저	47	82.5	10	17.5	57	100.0	7.544	.056
초고	56	90.3	6	9.7	62	100.0		
중	76	76.0	24	24.0	100	100.0		
고	32	71.1	13	28.9	45	100.0		
계	211	79.9	53	20.1	264	100.0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12>에 보이듯이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성별에 따른 외현화문제 유형의 차이 분석

성별	외현화문제 유형				전체		χ^2	p
	정상		(준)임상					
	n	%	n	%	n	%		
남	103	79.2	27	20.8	130	100.0	.077	.451
여	108	80.6	26	19.4	134	100.0		
계	211	79.9	53	20.1	264	100.0		

4.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1) 학교급별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학교급별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에 보이듯이 초저, 초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있었다(t = -4.156, p < .001). 즉, 중학생 집단에서는 외현화문제 정도(M=52.68, SD=10.48)가 내재화문제 정도(M=49.72, SD=10.59)보다 높았다.

<표 Ⅳ-13> 학교급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분석

학교급	구분	정서행동문제		*t*	*p*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초저	*M*	48.00	50.04	-1.81	.075
	SD	8.55	9.57		
	n	57	57		
초고	*M*	47.71	47.32	.432	.667
	SD	9.50	9.64		
	n	62	62		
중	*M*	49.72	52.68	-4.156***	.000
	SD	10.59	10.48		
	n	100	100		
고	*M*	55.27	53.92	.994	.326
	SD	10.42	10.35		
	n	45	45		

*** $p < .001$.

2)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에 보이듯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분석

성별	구분	정서행동문제		*t*	*p*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남	*M*	49.73	50.75	-.143	.915
	SD	9.87	9.76		
	n	130	130		
여	*M*	49.91	51.36	-.476	.688
	SD	10.52	10.84		
	n	134	134		

3)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에 보이듯이 학령기 학교급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15> 학교급별 남녀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분석

학교급	성별	구분	정서행동문제		*t*	*p*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초저	남	*M*	48.64	51.09	.618	.539
		SD	9.11	10.44		
		n	31	31		
	여	*M*	47.23	51.09	.913	.365
		SD	7.93	10.44		
		n	26	26		
초고	남	*M*	48.14	47.45	.406	.686
		SD	9.80	9.75		
		n	35	35		
	여	*M*	47.14	47.14	.124	.902
		SD	9.24	9.67		
		n	27	27		
중	남	*M*	49.29	51.80	-.335	.739
		SD	8.35	8.31		
		n	41	41		
	여	*M*	50.01	53.28	-.694	.489
		SD	11.96	11.78		
		n	59	59		
고	남	*M*	56.13	55.21	.564	.575
		SD	11.55	10.74		
		n	23	23		
	여	*M*	54.36	52.54	.863	.393
		SD	9.25	9.98		
		n	22	22		

Ⅴ. 논의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차이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집단이 초저 집단과 초고 집단보다 총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저, 초고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이 진학과 진로문제 등의 장래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는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장한 만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갑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고등학교 시기에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 김수주, 2002; 이은아, 정혜정, 2000)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추후 연구에는 중·고등학생을 청소년 집단으로 묶어서 한 집단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총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구체적인 이유와 고등학생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는 심층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사지 개발자 오경자와 김영아(2011)에 의하면 총행동문제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홍태경, 류준혁(201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정서행동문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최근의 시대 흐름에서 남아와 여아의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여아들의 자존감이 더 커지고, 이에 따라 남아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의식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여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사뭇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볼 때, 남아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남학생의 문제행동이 여학생보다 컸었던 기존의 현상과 비추어볼 때 일견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만큼이나 자만스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은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피상적인 서구사회의 남녀동등의 행동을 분별없이 받아들인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나, 쉽게 단정할 수 없는 현상이며,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필요성이 필요 하겠다.

또한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에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1>과 [그림 Ⅳ-1]에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총행동문제 정도는 고등학생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학생 집단, 초저 집단, 초고 집단의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문제행동이 점점 높아져 고등학생에게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 김성수, 2011; 김수주, 2002; 문영숙, 2008; 이혜경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외현화 행동문제(비행, 공격성)가 많이 나타나고, 여자는 내재화 행동문제(우울과 불안) 가 많이 나타난다(고정자, 2003; 김수주, 2001; 노숙영, 1998; 노현숙, 2002; 윤혜미, 박병금, 2005; 한미현, 1993)고 보고되는데, 이와는 달리,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차이가 없는 것은 여학생도 욕구에 대한 불만을 공격성이나 비행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성수, 2011). 이 이야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회적인 역할 구분이 사라진 현상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즉, 예전과는 달리, 학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정상, (준)임상]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유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3>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준)임상 유형 비율에 차

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집단에서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중학생 집단 17.0%, 초저 집단 10.5%, 초고 집단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로서 친구와의 갈등, 학업스트레스, 가정의 문제(이혼, 편부모, 부모의 폭력), 게임, 이성친구, 경제적 문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홍경태, 류준혁(2010)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에게 나타나는 비행비율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요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구요인, 가족요인(부모의감독, 애착, 부모의 학대), 학교요인(성적, 선생님과 유대관계)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서미정, 김경연, 2010; 소선숙, 김희경, 김청송, 2011; 윤혜미, 박병금, 2005; 이해경, 2013; 홍경태, 류준혁, 2010)들이 있고, 이것들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에게 정상비율이 중・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학교문제, 친구문제, 가족문제들이 중・고등학생과 똑같다 할지라도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는 인지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며, 주어진 심리적 환경(교우관계, 학교관계)에 중・고등학생에 비해 비교적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영옥(2010)에 의하면 아동기는 자발성과 친밀감이 높아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청소년들은 추종성과 임의성이 많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가 높아짐에 따라, 공격성, 음주, 흡연, 우울, 자살생각, 폭력 등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인기의 학대적인 양육행동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김채철, 성경주, 최원형, 2010; Loeber & Hay 1997)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의 총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환경제공과 상담, 교육과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겠다.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유형[정상, (준)임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형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4>에 보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준)임상 유형 비율이 각각 16.9%와 15.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근래 여학생의 (준)임상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결과이며, 1가구 1자녀가 대부분인 현대의 가정상황은 물론, 여아와 남아의 구분을 두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심각한 수준의 행동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3; 김유경, 2004; 김주분, 1994; 김혜영, 1999; 노영숙, 1998; 이은아, 정혜정, 2000; 임성택, 2002). 또한,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Dekovic, Wissink & Meijer, 2004;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이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강하남(2013)은 여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남학생이 느끼는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고,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김선자, 조옥귀, 2003; 이정미, 양명숙. 2006; 최경호, 2000; 황혜정, 2003; McGee, Sliva, & Williams, 1985)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문제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이다. 서찬란(2005)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가벼운 비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 파마나 염색, 화장, 교복변형, 이성과의 교제를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여자청소년의 범죄유형에서 폭력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김준호, 김은경, 1995)는 연구도 있다. 이는, 오늘날 사회상의 변화로 여학생들의 대담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비행문제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문제행동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차이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집단이 초저 집단, 초고 집단, 중학생 집단보다 내재화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같은 내재화 문제는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 높거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세원, 2010; 김재철, 최지영, 2010; 박종효, 2007; 서미정, 2008; 이주리, 2008)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집단에서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고등학교에 올라감에 따라 입시, 성적, 직업, 대학진학 등에 대한 걱정,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겠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양재원 등(200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성적 걱정, 앞일 걱정 등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정서가 내재화 행동문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재화 행동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부모님이나 교사 또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울이나 불안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삶, 결혼, 이성친구, 가정문제(소선숙, 김희경, 김청송, 2011)의 스트레스가 내재화문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은 학업, 진로, 친구 또는 이성문제이다. 이 시기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난다(임영식, 한상철, 2000; 정경택, 2003; 최진오, 2011).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실제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중심적 해결방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내재화 행동문제(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가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재화 행동문제가 여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강지흔, 박성연, 2005; 고정자, 2003; 권영옥, 1998; 하은혜, 송동호, 2005; Lahet et al., 2000)은 여학생에게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남학생들에게는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서미정(2008)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서미정(2008)의 연구가 앞의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본 연구와 시대적으로 더 가깝다는 점을 주목하면, 이렇게 내재화 행동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게 나타난 원인이 시대적 변천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선행연구들의 시점에 비하여 본 연구 시점에서 남녀 간의 사회적인 역할구분이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남녀 공통의 행동문제들은 학령기 학생들이 자라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감내해야 할 현상이며, 특히, 내재화 행동문제, 즉, 우울 및 불안 등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한국의료보건연구원(2012)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청소년 자살자가 8.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8%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정도에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5>와 [그림 Ⅳ-2]에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내재화문제 정도는 고등학생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학생 집단, 초저 집단, 초고 집단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녀 간의 사회적인 역할구분이 줄어들고, 사회진출이 또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입시, 성적, 직업, 대학진학 등에 대한 걱정,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가 남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유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7>에 보이듯이 학교급에 따라 (준)임상 유형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집단에서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초고 집단 12.9%, 중학생 집단 12.0%, 초저 집단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학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커지거나, 혹은 동일한 정도의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이를 자각하는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행동문제를 자각하는 정도가 더 커지고,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서, 스스로 위축, 불안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 결과로 고등학생 집단에서 (준)임상 유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유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Garber et. al., 2002; Leslieet et. al., 2005), 이영옥(2010)은 내재화문제는 아동초기에서 아동중기, 아동후기로 조금씩 상승을 보이다가 청소년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 중의 하나는, 내재화 행동문제의 (준)임상 유형은 고등학생 집단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 집단보다는 조금 높지만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아동들의 사춘기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가 대부분 초고 집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개인의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내재화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이주리, 2008; 좌현숙, 변귀연, 2010), 이러한 결과는 위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유형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 유형[정상, (준)임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형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8>에 보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준)임상 유형 비율이 각각 13.8%와 16.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내재화 행동문제가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고정자, 2003; 노현숙, 2002, Dekovic, Wissink & Meijer, 2004)들과는 달리, 내재화 행동문제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남학생들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박진자(2002)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권영옥(1998)에서도 초등학생들의 경우, 내재화 행동문제의 우울 성향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 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논한 총행동문제에서 성차가 없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남녀의 성차의 구별이 줄어든 현상과 명백히 상관관계가 있겠으나, 그 분명한 원인에 대하여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선행연구들(고정자, 2003; 구미향, 이양희, 2003; 김진호 외, 2007; 노현숙, 2002; 오경자, 1991; 이정미, 양명숙, 2006; 하은혜, 송동호, 2005;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Stattin & Kerr, 2004; Worchel, Nolan & Willson, 1987)에서와 같이, 남학생들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여학생에서는 내재화 행동문제가 나타난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결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내재화 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원인과 성별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차이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급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이 각각 초고 집단보다 외현화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보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소비성향이 부추겨지거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흡연과 음주, 또 더 나아가 약물 오남용 등이 촉발됨으로써, 중·고등학생들의 외현화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초등학생의 경우 최진오(2011)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격성을 보이고, 오영진과 김영희(20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중학교 3학년부터 감소하다가 이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오경자와 김영아(2011)는 청소년 남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시기에 걸쳐서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았듯이, 외현화 행동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대학입시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서,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외, 교우문제, 진로문제, 가정환경의 심리적인 부담이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총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와 같이, 남녀 간 역할구분이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여학생들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

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강현정, 국승희, 2010; 오경자, 김영아, 2011; 윤혜미, 박병금, 2005; 이정숙 외, 2007; Simon, at al., 2002; 하은혜, 송동호, 2005;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Simons, Paternite, & Shore, 2001)고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여학생은 내재화 행동문제가 주로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행동문제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시점에 비하여 최근의 사회 현상이 남녀 역할구분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 문제 정도에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9>와 [그림 Ⅳ-3]에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외현화문제 정도는 고등학생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학생 집단, 초저 집단, 초고 집단의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가정, 학교, 개인요인)이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원인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이영옥 2010)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 역시도 남녀간 역할구분이 사라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며, 말하자면, 무남독녀가 흔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무남독녀가 가지는 정신적 압박감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은 무녀독남아가 가지는 그것들과 별다름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겠다.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외현화문제가 전체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과 입시 등과 같은 것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한편으로는, 흡연, 음주, 게임, 이성문제 등과 같은 비행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2) 학교급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유형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개인, 가정, 학교요인)이 특정 학년에만 뚜렷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똑같은 원

인(개인, 가정, 학교요인)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스트레스 수준 또한 아동·청소년을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의 사춘기가 현저히 빨리 오게 됨에 따라,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이성문제, 친구문제, 학업문제, 가정문제)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으며, 요즘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중독(게임, 인터넷, 핸드폰, 알코올, 음란물, 담배)이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서찬란, 2005; 이해경, 2013).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모방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이런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준)임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초저 집단에서부터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과 해결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 차이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 유형[정상, (준)임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형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Ⅳ-12>에 보이듯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준)임상 유형 비율이 각각 20.8%와 19.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보면, 남학생들에게 외현화 행동문제와 문제행동의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준호, 김은경, 1995). 또한, 신은주(2009)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적 공격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역시 남학생들이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다 더 신체적 및 언어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6; Huttunen, Salmivalli & Lagerspetz, 1996). Crick와 Grotpeter(1995)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격적이고 적의적일 수 있으나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남학생들은 타인에 대해 외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경쟁이나 지배보다는 표현적이거나 관계적인 목표들, 즉,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이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와 일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그 연구가 진행된 연도의 숫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앞에서 나열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까지의 연구이고(김주분, 1994; 김준호, 김은경, 1995; 노영숙, 1998; 김혜영, 1999; 이은아, 정혜정, 2000;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임성택, 2002; 고정자, 2003;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김유경, 2004), 그 시대에는 여학생보다 대부분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므로 남학생들의 문제행동들이 더욱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크고,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환경과 문제행동의 경험에 노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남녀의 구별이 빠르게 사라짐에 따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행동문제가 오히려 부각되어 증가하는 추세이고, 따라서 외현화 행동문제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두드러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김유경, 2004; 문화관광부, 2004; 박진자, 2002; 서찬란, 이경주, 1997; 이정아, 2003; 이형실, 2006; 장연심, 2003).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성별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정숙 외, 2009; 기채영, 홍경자, 2009; 김덕임, 2007; 이정미, 양명숙, 2006; 한유진, 2006)도 이미 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위에 있고, 그 결과의 하나로서 외현화 행동문제에 있어서의 성차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양상을 염두에 두고, 성별에 따른 외현화 행동문제의 유형에 관한 후속연구와 그 변인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1) 학교급별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학교급별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저, 초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외현화문제가 내재화문제보다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춘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중학생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개발자인 오경자와 김영아(2011)에 의하면,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외현화 행동척도가, 중・고등학교 집단에서는 내재화 행동척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문영숙(2008)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시기보다 고등학교시기에 외현화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이다. 이들은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비행이 많았다는 연구결과(김현실, 2002; 오경자, 이혜련 외, 1990; 오경영, 2007; 임인섭, 2012; 이경민, 2005)와, 중학교 학년에 따라서도 외현화 행동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연구한 김희화와 김경연(2000)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학년이 1학년보다 정서행동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처럼 중학생에게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학업문제(학원, 과외)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초등학교와는 불연속적으로 다른 학교생활(예: 각 과목 선생님, 친구들과의 헤어짐)과, 남녀공학으로 인한 이성문제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근력이 더욱 강해지지만 근력이 강해지는 속도 이상으로 청소년의 지적, 윤리적, 그리고 정신적 성장을 유도해야 하는 중학교 교육이 혹시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며,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관한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이경민, 2005), 같은 맥락에서 내재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외현화 행동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오영희(2007)의 연구도 있으며, 이해경과 김해원(2011)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내재화 행동문제(우울, 위축, 불안)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성별에 있어서 정서행동문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소선숙 등, 2011; 오경자 등, 2010; 장연심, 2003)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학령기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의 차이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시대적 흐름과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정서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으며, 학교와 사설치료센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정서행동문제를 가질 확률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이해와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남녀 집단 각각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별 남녀 집단 모두에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남학생의 문제행동 양상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여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4학년에서 6학년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 여학생에게 내재화 행동문제가 남학생에게는 외현화 행동문제가 나타났으며(강지흔, 박성연, 2005; 권영옥, 1998; 김정숙, 2009; 윤맹렬, 1995; 이경혜, 2001; 이태은, 2010; Sourander, Helstela, 2005), 신윤희(2007)는 내재화 행동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 집단에서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증상, 우울 등의 내재화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남학생들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여학생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고정자, 2003; 김현실, 2002; 이경민, 2005; 최보가, 임지영, 1999; Stattin & Kerr, 200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많은 선행연구들은 여학생들에게는 내재화 행동문제를 나타내고, 남학생들에게는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났다(강현정, 국승희, 2010; 오경자, 김영아, 2011; 윤혜미, 박병금, 2005; 이정숙 외, 2001; Simon, 2002; 하은혜, 송동호, 2005; Stattin & Kerr, 2000; Worchel, Nolan, & Willson, 1987)는 결과를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남녀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에 유의미한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전반적 비교

이상의 연구문제별 논의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차이를 평균과 순위를 통해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표Ⅴ-1>과 같다.

<표Ⅴ-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평균 및 순위

학교급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M	순위	*M*	순위	*M*	순위	*M*	순위	*M*	순위	*M*	순위	*M*	순위	*M*	순위	*M*	순위
초저	45.29	4	50.50	3	47.66	3	47.35	4	48.77	3	48.00	3	49.77	3	50.35	3	50.03	3
초고	47.83	3	46.85	4	47.40	4	48.14	3	47.15	4	47.70	4	47.46	4	47.15	4	47.32	4
중	49.80	2	51.41	2	50.75	2	49.29	2	50.02	2	49.72	2	51.80	2	53.29	1	52.70	2
고	56.26	1	53.50	1	54.91	1	56.13	1	54.36	1	55.26	1	55.22	1	52.55	2	53.91	1

<Ⅴ-1>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고등학생 집단이 총행동문제(*M*=54.91), 내재화문제(*M*=55.26), 외현화문제(*M*=53.91)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집단이 전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 정도 차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저 및 초고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이 진학과 진로문제 등의 장래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는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각능력이 성장한 만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기에 성차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정서행동이 증가하고, 고등학교 시기 동안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고 하였다(곽금주, 문은영, 1993; 김수주, 2002; 김현숙, 1998; 이은아, 정혜정, 2000; 하은혜, 송동호, 2005)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초·중·고 학생 648만 2474명 가운데 관심군(관심군 중에서도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16.3%(105만4447명), 주의군(1차 검사 결과 학교 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은 4.5%(22만398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관심군 비율은 초등학교 16.6%(46만6560명), 중학교 18.3%(33만2008명), 고등학교 13.8%(25만5879명)였고, 주의군 비율은 초등학교 2.4%(5만898명), 중학교 7.1%(9만6077명), 고등학교 5.4%(7만7014명)였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관심군, 주의군 비율은 중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기존 선행연구(김유경, 2004; 김희화, 김경연, 2000; 문영숙, 2008; 서찬란, 이형실, 2005; 최보가, 임지영, 1999; 최영심, 2000; 현명선, 2004)들과 일치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생에게서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서 주목할 만한 하다. 추후 연구에는 중·고등학생 집단을 청소년으로 통합하여 연구하는 것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고등학생에게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과 고등학생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 집단이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보다 정서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즉, 고등학교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나타냈다. 이는 친구와의 갈등, 학업스트레스, 가정의 문제(이혼, 편부모, 부모의 폭력), 게임, 이성친구, 경제적 문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기로의 성장함에 따라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외부에 대한 반항심과 고독, 불안, 초조 및 심한 정서적 갈등과 혼란, 좌절 등 많은 스트레스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성별에 관해서 이해경(2013)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관계의 문제, 충동과다행동, 섭식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가족관계문제,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 김수주, 2001; 김희화, 김경연, 2000; 오경자, 김영아, 2011; 오영진, 김영희, 2010; 현명선, 2004; Hankin & Abramson, 2002)가 있다. 이들은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바뀔 필요가 있겠으며, 교사, 상담교사, 부모들은 어른들의 시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나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의식, 즉, 자존감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의지에 강압적으로 부합하도록 행동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고 공감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안정된 정서적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초고 집단이 총행동문제(M = 47.40), 내재화문제 (M = 47.70), 외현화문제(M = 47.32)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초고 집단이 전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지가 더 발달되어 있으며, 근래에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춘기 직전의 시기로, 다른 집단(초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영옥 2010).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게서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학교급에 따른 내재화문제 유형의 차이분석<표 Ⅳ-7>에서 살펴보면, (준)임상이 초등학교 저학년(12.9%)보다 중학생(12.0%)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 즉, 초등학교 정서행동문제는 학교급별로 보았을때,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정서행동문제 중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준)임상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원인도 추후 연구에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넷째, 초고 집단이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행동문제를 더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초고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적게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가정과 학교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소통이 많고, 친밀하며,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 등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김애숙, 1993; 김정숙 외,

2009; 이태은, 2010; 최진오, 2011), 신윤희(2007)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초등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비교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와 원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섯째, 외현화문제에서 중학교 여학생(M = 53.29)이 중학교 남학생(M = 51.80)보다 더 높은 정도를 보였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여학생들이 과거에 비하여 더 많이 “boyish”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의 행동양태가 남녀의 역할구분이 강하게 요구되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사회상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여학생들의 자기표현 방식이 남학생들과 유사해졌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 시기의 여학생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피상적으로 접하는 서구 문화를 불완전하게 모방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수주, 2002; 김유경, 2004; 문화관광부, 2004; 서찬란, 이형실, 2006; 이정아, 2003; 장연심, 2003), 남학생에게서 내재화 행동문제인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이향선, 1999). Rudan 등(2005)은, 여학생(12~18세)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갖고 있고 있으며, 여학생의 문제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648만 2474명 가운데 관심군(관심군 중에서도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16.3%(105만4447명), 주의군(1차 검사 결과 학교 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은 4.5%(22만398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관심군인 남학생은 16.8%(56만8000여명), 여학생은 15.7%(48만5000여명)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만 3000여명 많았다. 반면 주의군(1차 검사 결과 학교 내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은 여학생이 5.2%(12만2000여명)로 남학생(3.9%,10만1000여명)보다 2만 1000여명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요즘의 여학생들은, 남학생 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일탈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도한 머리치장이나 염색, 화장, 교복변형 착용,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 등을 많이 경험하며

(서찬란, 이형실, 2006), 중학교 여학생들이 품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이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최영심, 2000).또한, 여학생들은 2차 성징이 발달되면서 정서감정이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기도 하고, 옷 입는 것, 공부, 친구문제 등에 있어서 부모의 참견을 싫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여학생의 행동문제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비롯한 문제행동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고 마련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은 한 시가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의 따듯한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학년이 아닌 학교급(초저, 초고, 중, 고)과 성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연구결과의 결론 및 연구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 론

첫째, 학령기 학생들의 총행동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학교급에 따른 총행동문제는 고등학교 남학생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이는 초저, 초고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이 진학과 진로문제 등의 장래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장한 만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행동들이 지속될 수 있으며 비행청소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심리적·사회적 적응 감을 높여주어 정서행동문제 수준을 점차 낮춰주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인식하고 알아가는 방법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고등학생 집단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과 성별간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입시제도와 진로문제, 교우관계, 가족문제, 왕따 등 심리적 환경과 학업성적, 취업,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육병리 현상과 학력 지향적 사회구조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 내재화 행동문제가 고등학생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는 내재화문제는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내재화문제에 남녀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남학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학업성적 등 개인의 심리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재화 행동문제를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성인기까지 이어져 정신 병리적 증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조기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

셋째, 학령기 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는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나고, 외현화문제는 남학생에게서 나타난 결과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외현화문제에 성별의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는 불건전한 영업,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 불필요한 소비성향부추김, 약물사용, 음주, 스마트폰, 게임, PC방, 흡연을 촉발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중·고등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높게 나타나고, 외현화 행동문제들은 남녀 구분 없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외현화 행동문제의 성별차이는 점점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외현화 행동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자신을 알아가고, 인성교육과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내는 등, 외현화 행동문제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간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 집단에서 외현화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학업문제(학원, 과외)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초등학교와는 불연속적으로 다른 학교생활(예: 각 과목 선생님, 친구들과의 헤어짐)과 사춘기로 접어듦에 따른 이성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신체가 성장함

에 따라 근력이 더욱 강해지지만 근력이 강해지는 속도 이상으로 청소년의 지적, 윤리적, 그리고 정신적 성장을 유도해야 하는 중학교 교육이, 혹시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며,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관한 면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문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 연구(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정서행동문제)를 전반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논의에서 살펴본 문제를 근거하여 결론을 살펴보면, 학교급에 따라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고등학교 집단이고,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총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외현화문제는 중학교 남학생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집단에게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가 발달하면서 본인의 행동문제를 자각하는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으며,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감에 따라 입시, 성적, 직업, 대학진학 등에 대한 걱정,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에게서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적게 나타난 원인은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지가 더 발달되어 있으며, 근래에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사춘기 직전의 시기로, 다른 집단(초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외현화문제가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가 변화해가고 있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성별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는바,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제 언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과제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모집단의 편의표집방법으로 G지역을 한정시킴으로써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특정지역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모집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설문지 부수를 더 많이 회수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이해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에게 정서행동문제 해결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향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매뉴얼은 임상범위를 “정상”, “준임상”, “임상”으로 나누어 제시되어있지만, 본 연구는 정서행동문제의 유형별 집단 구분을 “정상”과 “준(임상)”으로만 구분하였다. 따라서 준임상과 임상의 집단에서 문제행동의 수준의 차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상”, “준임상”, “임상”으로 구분지어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준임상”과 “임상” 수준의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중재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K-CBCL로 부모용 측정검사지이다.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K-CBCL은 부모용 검사지로 부모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측정했다는 제안점이 있다.

다섯째,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변인 중 학생 학교급과 성별로만 국한시켰다. 학교급과 정서행동문제의 특징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적인 추이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변화의 추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승호, 정은주 (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05-424.

강종구, 김미경, 김영한, 옥정달, 이정규, 이태훈, 이한우, 정주영, 한석실, 한은미, 허명진 (2001). **특수교육학 개론.** 서울: 학지사.

강지흔, 박성연 (2005). 남·녀 아동의 부적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강하남 (2013). **아동·청소년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북.

강현정, 국승희 (2010). 내재화 장애 청소년과 외현화 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보고와 청소년 보고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29**(4), 907-925.

경기도교육청 (2010). **정신건강매뉴얼.** 수원: 경기도교육청.

고영희 (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춘기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기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41**(7), 121-143.

고현자 (2000).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 인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 **특수교육통계.** 서울: 저자.

교육과학기술부 (2013. 2. 8). **보도자료: '13년 학생정신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서울: 저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 (2012). **제 8차(2012) 청소년건강상태 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청원.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구미향, 이양희 (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및 관련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16**(1), 341-363.

구본권 (1997). **특수교육학**(제2판). 서울: 교육과학사.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사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원 (200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간호학회지, 11**(1), 132-141.

권영옥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권요한, 김수진, 김요섭, 박중휘, 이상훈, 이순복, 정은희, 정진자, 정희섭 (2010).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기채영, 홍경자 (2009). 초등학생의 인지, 행동, 정서적 자기격려 연구: 성과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 12**(1), 129-142.

김대순, 강차연 (2008). 고등학생의 우울과 공격성. **심리치료학회, 8**(1), 85-100.

김덕임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수줍음 수준과 성별에 따른 내재화 문제 및 학교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김선자, 조옥귀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3**(1), 316-385.

김소야자 (1990).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양향에 관란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애숙 (1993). **초등학교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공격유형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김영한, 김정현, 김하경, 박선희, 박정식, 엄태식, 연미희, 임채식, 조재규, 한석실, 홍정숙 (2012). **특수아동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김영희, 이정미 (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14.

김원경, 조홍중, 허승준, 추연구, 윤치연, 박중휘 공역 (2009). **특수교육학**(제2판). 서울: 학지사.

김유경 (2004).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인**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은주, 이승희 (2013). 초등학생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준별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25-44.

김일명, 김원경, 조홍중, 허승준, 추연구, 윤치연, 박중휘, 이필상, 문장원, 서은정, 유은정, 김자경, 이근민, 김미숙, 김종인, 이신동 공저 (2013). **최신특수교육학**(제3판). 서울: 학지사.

김재철, 최지영 (2010).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21**(1), 123-147.

김주분 (1995).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논문집, 23**, 113-132.

김준호, 김은경 (1999). 공부와 청소년 비행. **청소년학 연구, 6**(2), 123-143.

김준호, 이동원 (1996). **보호관찰제도의 실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

김진호, 박재국, 방명애, 안성우, 유은정, 윤치연, 이효신 (2007). **최신 특수교육**(8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춘진 (2010. 8. 18). 초·중·고생 12.8% 정신건강 적신호. http://www.cjkorea.org에서 인출.

김태련, 이경숙 (1992). 반사회적행동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의학회, 3**(1), 14-25.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현실 (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혜정, 조복희 (2006). 초등학교 5, 6 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1), 45-54.

김희화, 김경연 (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현적·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노현숙 (2002).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

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해.

동아일보 (2012. 2. 1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문기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문미영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문영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학회지, 17**(1), 22-30.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 백서.** 서울: 저자.

민성길, 김한중, 오경자, 이혜련, 김진학, 신의진 (1997). 학교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신경학회지, 36**(5), 821-822.

박경숙 (2004).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선교 방안**. 석사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서울.

박원희, 김기창, 김영일, 김영욱, 이은주, 신현기, 한경근, 이숙정, 김애화, 윤미선, 김은경, 송병호, 이병인, 김송석, 양경희 (2009). **특수교육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박종효 (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추이 분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7-59.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서울.

박진자 (2002).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K-CBCL과 K-YSR 실시 결과의 비교 연구: 제주도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방명애, 이효신 (2013). **정서 및 행동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보건복지부 (2008). **정신보건 사업안내.** 서울: 저자.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서미정, 김경연 (2010).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공격성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아동학회지, 31**(3), 83-97.

서선주 (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2006). **2005년도 역학사업보고서-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율조사**. 서울: 저자.

서찬란, 이형실 (2006).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18**(2), 151-162.

성영민 (200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과 문제행동: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남.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신유림 (2007).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와 친구관계의 관련성: 친구관계망, 친구관계 및 친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75-83.

신유황 (2000).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대처양식. **아동교육, 9**(1), 121-129.

신윤희 (2007). 초등학생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연구. **특수교육생활과학연구, 46**(4), 289-303.

신은주 (2009).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자기통제력이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신지현 (2009). **정서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중학교 1, 2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부산.

신호임 (2004).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도.

양재원, 노일석, 홍성도, 김지혜 (2005). 기질특성이 청소년기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회, 44**(3), 350-356.

오경자, 김영아 (2011).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휴노.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오영경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2**(4). 51-64.

오영진, 김영희 (2010).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양상과 유형화 예측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8**(10), 89-103.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21**(3), 646-663.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

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유재연, 윤희봉, 임경원, 고등영, 박경옥, 이태수 외 (2009).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윤맹렬 (1995).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격 특성: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윤지선 (2011).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행동 관련요인-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1), 133-164.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이경민 (200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대구.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이경혜 (2001).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행동장애 출현율: 연령차 및 성차를 중심으로. **정서·학습장애연구, 17**(2), 93-116.

이명숙, 이승희 (2003).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지도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학회지, 7**(2), 71-85.

이성식 (2006).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종단적 패널 연구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6**(2), 5-33.

이소현, 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2판). 서울: 학지사.

이수연, 이승희 (2012).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간의 평가차이 및 관련변인. **특수교육학연구, 47**(1), 63-85.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37-58.

이영옥 (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은아, 정혜정 (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493-500.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2).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2**(2), 225-241.
이재창, 김영만, 신경숙, 손승희 (1998).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5**(1), 105-190.
이정미, 양명숙(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56-883.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5**(4), 375-383.
이정숙, 김수진, 김보영, 권영란, 정혜정, 정복순 (2009). 일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2**(2), 113-124.
이정숙, 최봉실 (2001). 일 도시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615-628.
이정아 (2003). **중학생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이종철 (2006). 학교급별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성의 실태분석. **생활과학연구, 25**(1), 195-213, 조선대학교 생활과학연구.
이주리 (2008). 잠재모형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아동과 권리, 12**(4), 503-523.
이한철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해경 (2013). 비행 청소년들의 내재화/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생활부적응문제들의 영향력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5**(3), 295-319.
이해경 (2013). 비행청소년들의 내재화/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생활부적응문제들의 영향력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5**(3), 295-319.
이해경, 김혜원 (2011). 남녀 중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 정도와 위험수준별 실태. **청소년복지연구, 13**(1), 163-188.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청소년 정서 및 행동문제의 성차.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1). 117-123.
임성택 (2002).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9**(1), 221-246.
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장선철 (2009). **특수아동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장연심 (200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장용백 (2000).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도.

장은경 (2000). **외현화 내현화 장애집단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함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전헌선, 윤치연, 공나영, 김성화, 도명애, 박순길, 서석진, 서영란, 송호준, 양경애, 이수진, 이정남, 최성욱 공역 (2012). **특수교육학개론**. 경기도 파주: 양서원.

정경택 (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51-162.

정대영 (2013).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정동영, 김주영, 김형일, 김희규, 정동일 (2010). **특수아동의 이해**.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정선미, 김진호 (2009). 초등학교 고학년의 감정표출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학국학교보건학회지, 22**(2), 125-135.

정성태 (1998). **체육과 교육**. 서울: 갑을 출판사.

정혜정 (2000). **청소년 비행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각종문헌을 통한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서울.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욱, 류인균, 조맹재 (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관련유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조수철, 김붕년, 정동선, 황준원, 신민섭, 류인균, 김재원, 고복자, 이상은, 정선우, 김효원 (2006). 지역사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기질 및 성격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7**(2), 124-130.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과정에서 내재화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1), 113-1140.

주지영 (2009).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간의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2**(1), 73-95.

질병관리본부 (2009). **2008 청소년건강행탸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2004 청소년백서**.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최경호 (2000).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 및 가정환경 변인별 학교폭력경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최억승 (1992). **정서부적응 아동의 지동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강릉.

최재영 (2006).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서울.

최진오 (2011). 초등학생들의 ADHD성향과 사회기술 수준간의 관계분석. **아동교육학회, 2**(1), 265-278.

추연구, 이정남 (2012). **특수교육의 이해.** 경기도: 양서원.

표경식, 박상학, 김상훈, 조용래, 김학렬, 문경래 (2005). 도시지역 초등학생에서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의 유병율. **조선대학교논문집, 26**(1), 105-117.

하은혜, 송동호 (2005).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학회, 44**(1), 89-9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서울.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한상철 (2003). **청소년 행동문제.** 서울: 학지사.

한유진 (2006). 아동의 부적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4), 85-100

현명선 (2004). 청소년의 성적발달과 문제행동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서울의 일 개교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9**(4), 445-468.

현온강, 이현정 (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9.

홍태경, 류준혁 (2010).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2), 113-138.

황혜정 (2003). 중·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부모용 진단검사 개발연구. **열린교육학회, 11**(2), 199-214.

Achenbach & Edelbrock (1984).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2), 227-256.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Ontario: University of Vermont.

Archer, J. (1996).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re the social role and evolutionary explanation is compatible? *American Psychologist, 51*(9), 909-917.

Archwamety, T., & Katsiyannis, A. (2000). Academic remediation, parole violations, and recidivism rates among delinquent youth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1*(3), 161-170.

Barry, T. D., Lyman, R. D., & Klinger, L. G. (2002). Academic underachievement an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The negative impact of symptom severity on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3), 259-283.

Benner, G. J., Nelson, J. R., & Epstein, M. H. (2002). The language skills of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2), 43-59.

Buchanan, C. M. Eccles, J. S., & Becker, J. B. (1992). Are adolescents the victims of raging hormones?: Evidence for activational effects of hormones on moods and behavior at adolescence. *Journal of Psychology Bulletin, 111*(1), 62-107.

Cartledge, G., & Milbum, J. F. (1995). *Teaching social skills to children and yout Innovative approache*s (3th ed.). Boston, MA: Allyn & Bacon.

Colenman, M., & Vaughn, S. R. (2000). Reading interventions with students with emotional/behavior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25*(2), 93-104.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 Victims of 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8*(2), 367-380.

Crick, N. R., & Ku, H. C.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er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76-385.

Culatta, R. A., Tompkins, J., & Werts, M. G. (2003). *Foundations of special education: What every teacher needs to know*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Culliman, D., Epstein, M. H. & Kauffman, J. M. (1984). Teacher's ratings of students' behaviors: What constitutes behavior disorder in school? *Behavioral Disorders, 10*(1), 9-19.

Cullinan, D. (2002). *Student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 introduction for teachers and other helping professionals.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Hall.

Cullinan, D. (2007).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 introduction for teachers and other helping professional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Cullinan, D., & Sabornie, E. J. (2004).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disturbance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2*(2), 157-167.

Dekker, M. C., Ferdinand, R F., Lang, Bongers, I. L., Ende, & Verhulst, F. C.,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from early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adult outc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7), 657-666.

Dekovic, M., Wissink, I. B., & Meijer, A. M. (2004). The role of family and peer relations in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omparison of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7*(5), 497-514.

Dixon, A., Howie, P. & Starling, J. (2004). Psychopathology in femal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6), 1150-1158.

Duncan, B., Forness, S. R. & Hartsough, C. (1995). Students identified as seriously emotionally disturbed in day treatment: Cognitive, psychiatric, and special education characteristics. *Behavioral Disorders, 20*(4), 238-252.

Epstein, M. H., Kutash, K., & Duchnowski, A. (1998). *Outcom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their families: Programs and evaluation of best practices.* Autism, TX: PRO-ED.

Fessler, M. A., Rosenberg, M. S., & Rosenberg, L. A. (1991). Concomitant learning disabilities and learning problems among students with behavioral/emotion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16*(2), 97-106.

Ford, T., Goodman, R., & Meltzer, H. (2003). The British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1999: The prevalence of DSM-Ⅳ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10), 1203-1211.

Forness, S. R., & Kavale, K. A. (2000).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EBD terminology and definition. *Behavioral Disorders, 25*(3), 264-269.

Funk, S. J. (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 Behavior, 26*(4), 403-512.

Garber, J., & Kaminski, K. M. (2002). Laboratory and perform-based measures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ildren Psychology, 29*(4), 509-525.

Glassberg, L. A., Hooper, S. t., & Madison, R. E. (1999). Prevalence of learning disabilities at enrollment in special education stud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26*(1), 164-172.

Glueck, S.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Common Wealth Fund.

Greenbaum, P. E., Dedrick, R. F., Friedman, R. M.,Kutash, K., Brown, E. C., Lardieri, S. P., Pugh, A. M. (1996). National adolescent and children treatment study(NACTS): Outcomes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and behavior disturbanc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4*(3), 130-146.

Gresham, F. M., Lane, K. L., MacMillan, D. L., & Bocian, K. M. (1999). Social and academic profile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groups: Risk factors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24*(3), 231-245.

Gullone, E. (2000). The development of normal fear: A century of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4), 429-451.

Hankin, B, L., & Abaramson, L. Y. (2002). Measuring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reliability,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491-504.

Hankin, B, L., & Abaramson, L. Y., Moffity, T. E., Mcgee, R., Silvia, P. A.,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of from preadolescent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Heward, W. L. (2009). *Exceptional children*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ogy, Bulletin, 111*(1), 127-155.

Horibata, J. M. (2006).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al monitoring,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ethnic identity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s thesis, Oregon University, Eugene, Oregon, United States.

Huttunen, A., Salmivalli C., & Lagerspetz, K. M. J. (1996). Friendship nerworks and bullying in schools. Analysi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4), 305-312.

Jimerson, Egeland, & Teo, (1999). Jimerson, S., Egeland, B., & Teo, A. (1999). Alongitudinal study of achievement trajectories: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 *Journal of Educational 19*(1), 116-126.

Juffer, F., Stams, G., J. J. M. & Van Ijzendoorn, M. H. (2004). Adopt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ego resiliency ego control, and sociometric statu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497-706.

Kaffuman, J. M., & Landrum, T. J. (2009).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Kaiser, A. P., Hancock, T. B., Cai, X., Forster, E. M., & Hester, P. P. (2000). Parent-reported behavioral problems and language delays in boys and girls enrolled in head start classroom. *Behavioral Disorders, 26*(1), 26-41.

Kalb, G., & Williams,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nd Crime.* Melbourne, Victoria: Melbourne Institute.

Kauffman, J. M. (1997). Conclusion: A little of everything, a lot of nothing is a agenda for failur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5*(2), 76-81.

Kauffman, J. M. (2005).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Kauffman, J. M., & Landrum, T. J. (2009).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u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Kirk, S., Gallagher, J., Anastasiow, N., & Coleman, M. (2006).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11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LaGrange, Teresa. C. & White, H. R. (1985). Age differences in delinquency: A test of theory. *Criminology, 23*(1), 19-46.

Lahey, B. B. (2000). Should the combined and predominantly inattentive types of ADHD be considered distinct and unrelated disorders? *Clinical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8*(2), 494-497.

Lane, K. L., Wehby, J., & Barton-Arwood, S. M. (2005). students with and at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Meeting their social an academic needs. *Preventing School Failure*, *49*(2), 6-9.

Liska, A. E. & M. D Reed, (1990),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4), 547-560.

Loeber. R. L. & Hay. D. L. (1997). Key issues in the Dvelopment of aggression and w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Psychology, 48,* 371-410.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 Psychologist, 53*(2), 242-259.

Lyon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Mastropieri, M. A., & Scruggs, T. E. (2004). *The inclusive classroom: Strategies for effective instruction*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Maughan, B., Pickles, A., Hagell, A., Rutter, M., & Yule, W. (1996). Reading problems and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trends in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1), 405-418.

McClelland, J. Morrison & Holmes. (2000). McClelland, M. M., Morrison, F. J., & Holmes, D. L. (2000). Children at risk for early academic problems: The rol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arly Children Research Quarterly, 15*(3), 307-329.

McDermott P. A. (1996). Nationwide study of developmental and gender prevalence for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 Child Psychol 24*(2), 53-66.

McGee, R., Williams, S., Bradshaw, J., Chapel, J. L., Robin, A., & Silva. P. A. (1985). The Rutter Scale for completion by teachers: Factor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gnitive abilities and family adversity for a sample of New Zealan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2), 729-729.

McGrath E. P, Repetti RL. (2002),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depressive symptoms, self-preceptions and cognitive distortions about the self. *Journal of Sbnorm Psychology, 111*(2), 77-78.

Paterson, D., Jiang, D., Craig, W., & Yoerger, K. (2000). Adolescent growth in new form of problem behavior: macro-macro-peer dynamics. *Prevention Science, 1*(1), 3-13.

Pelkonen M, Marttunen M, Pulkkinen E, Laippala P, Aro H. (1997). Characteristics of out-patient adolescent with suicidal tendencies. *Acta Psychiatr Scand, 95*(2), 100-1-7.

Peterson, L. (1987). Adolescent developme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2), 583-607.

Quay, H. C. (1986). *Classification. In H. C. Quay & J. S. Werry (Eds.), Psychopathology disorders of childhood* (3rd Ed.). New York: Wiley. Rutter.

Rudan, V., Begovac, I., Szirovicza, L., Filipović, O., & Skicić, M. (2005).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teacher report from and youth self refort problem scales in a nomative sample of Croatian children and adolescent aged 7-18. *Collegium Antropologicum, 29*(1), 17-26.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3), 226-249.

Salem, A., & Lagerspetaz C. N. (1996).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ther Involvement on Psychosocial Outcomes. m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7*(2), 331-341.

Shapiro, R. Siegel, A. W., Scovill, L., & Hays, J. (1998). Risk-taking patterns of female adolescents: What they do and why. *Journal of Adolescence, 21*(2), 143-159.

Siegel, L. J., & Senna. J. J. (1981).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West, Minnesota, AM: Saint Paul.

Simon, R. W. (2002). Revisiting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1065-1096.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 (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182-203.

Smith, T. E. C. (2005). IDEA 2004: Another round in the reauthorization proces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6*(2), 314-319.

Sourander, A., & Helstela, L. (2005). Childhood predictor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A prospective follow-up study from age 8 to 16. *Journal of the America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4*(1), 415-423.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Tepper, P., Liu, X. C., Guo, C., Zhai, J., Liu, T. Z., & Li, C. Q. (2008). Depressive sympyoms in chinese children and adolescents: Parent, teacher, and self repor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1*(2), 291-298.

Teri, L. (1982). The use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2), 227-284.

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Assistance to state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whit disabilities: Final regulations. *Federal Register, 64*(48),

300-303.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5). Informent,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rating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ur. *Euor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4*(3), 117-126.

Wagner, B. W. (2000). Presidential address 2000-Changing visions into reality. *Mental Retardation, 38*(2), 436-443.

Walker, H. M,. Colvin, G., & Ramsey, E. (1995).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Walker, H. M., & Fabre, T. (1987). Assessment of behavior disorders in the scho setting: Issues, problems, and strategies revisited. In N. G. Haring (Ed.). *Assessing and managing behavior disabilities* (pp. 198-24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atson, G. S., & Gross, A. M. (2000). Familial determinants. in M. Hersen & R. T., Ammerman (Eds.), *Advances abnormal child psychology* (2nd ed., pp. 81-99). Hillsdale, NJ: Lawrence-Erlbaum.

Webber, J., & Plotts, C. A. (2008).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Theory and practice* (5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William, L. H. & Heward, W. L. (2007). *Exceptional Children* (8th de.). NJ: Pearson Education Inc., Prentice Hall.

Williams, C. B., Finnegan, M. (2003). From myth to reality : Sound information for teachers about students who are deaf.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5*(3), 40-45.

Worchel, F., Nolan, B., & Willson, V. (1987). New perspectives o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School Psychology. 25*(4), 411-414.

Zalecki, C. A., & Hanshaw, S. P. (2004). Over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girl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ren and Adolescent Psychology, 33*(2), 125-137.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백승영입니다.

이 설문지는 자녀의 정서·행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중·고 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연 구 자 백승영
지도교수 이승희 드림

(연락처) E-mail : bsy-music@hanmail.net
직 장 : 062-360-5874
H. P : 011-9443-2839

<기초사항 질문지>

기입요령
기입요령: 1. 문항별호 해당되는 항목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문항에 알맞은 답이 없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기타 란에 간략히 써주십시오.
1. 자녀와의 관계는? _____ ① 부 _____ ② 모 _____ ③ 기타 (구체적으로:) 2. 자녀의 성별은? _____ ① 남 _____ ② 여 3. 자녀의 학년은? _____ ① 초1 _____ ② 초2 _____ ③ 초3 _____ ④ 초4 _____ ⑤ 초5 _____ ⑥ 초6 _____ ⑦ 중1 _____ ⑧ 중2 _____ ⑨ 중3 _____ ⑩ 고1 _____ ⑪ 고2

<정서행동문제 질문지>

문항	내용	전혀 아님	가끔	자주	문항	내용	전혀 아님	가끔	자주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2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2	부모님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신다. (구체적 내용:)	0	1	2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3	말다툼을 많이한다.	0	1	2	24	잘 안 먹는다.	0	1	2
4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0	1	2	25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0	1	2
5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0	1	2	26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0	1	2
6	대변을 아무데서나 본다.	0	1	2	27	샘을 잘 낸다.	0	1	2
7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0	1	2	28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0	1	2
8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0	1	2	29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구체적 내용:)	0	1	2
9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한다. 강박사고(구체적 내용:)	0	1	2	30	학교에 가는 것을 겁낸다.	0	1	2
10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0	1	2	31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0	1	2
11	어른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거나 너무 의존적이다.	0	1	2	32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	1	2
12	외로움을 호소한다.	0	1	2	33	지나치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논다.	0	1	2
13	혼란스러워하거나 갈피를 못 잡는다.	0	1	2	34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느낀다.	0	1	2
14	잘 운다.	0	1	2	35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0	1	2
15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0	1	2	36	잘 다치거나 사고를 잘 당한다.	0	1	2
16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0	1	2	37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17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0	1	2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0	1	2
18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39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19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0	1	2	40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환청)(구체적 내용:)	0	1	2
20	자기 물건을 부순다.	0	1	2	41	충동적이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한다.	0	1	2
21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42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문항	내용	전혀 아님	가끔	자주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44	손톱을 깨문다.	0	1	2
45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0	1	2
46	몸을 움찔거리는 등 신경과민성 동작을 보인다. (눈 깜빡임, 안면씰룩거림 등 포함) (구체적 내용:)	0	1	2
47	악몽을 꾼다.	0	1	2
48	다른 아이들이 싫어한다.	0	1	2
49	변비가 있거나 변을 못 본다.	0	1	2
50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0	1	2
51	어지러워한다.	0	1	2
52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53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	1	2
54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해한다.	0	1	2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0	1	2
	a.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0	1	2
	b. 두통	0	1	2
	c. 메스꺼움	0	1	2
	d. 눈의 이상(안경으로 교정된 문제는 제외) (구체적 내용:)	0	1	2
	e.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0	1	2
	f.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g. 구토	0	1	2
	h. 기타(구체적 내용:)	0	1	2

문항	내용	전혀 아님	가끔	자주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58	코를 후비거나 피부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뜯는다. (구체적 내용:)	0	1	2
59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논다.	0	1	2
60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0	1	2
62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설프다.	0	1	2
63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64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65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66	특정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한다: 강박행동(구체적내용:)	0	1	2
67	가출한다.	0	1	2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69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0	1	2
70	헛것을 볼때가 있다(환시) (구체적 내용:	0	1	2
71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거나 쉽게 무안해 한다.	0	1	2
72	불을 지른다.	0	1	2
73	성문제(구체내용:)	0	1	2
74	과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0	1	2
75	지나치게 수줍어 하거나 소심하다.	0	1	2
76	보통 아이들 보다 잠을 적게 잔다.	0	1	2
77	보통 아이들 보다 낮에는 잠을 많이 잔다. (구체적 내용:)	0	1	2

문항	내 용	전혀 아님	가끔	자주	문항	내 용	전혀 아님	가끔	자주
78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 진다.	0	1	2	100	수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79	말하기(언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0	1	2	101	학교를 빼 먹는다: 무단결석	0	1	2
80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0	1	2	102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0	1	2
81	집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0	1	2	103	불행해 보이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	0	1	2
82	집 아닌 다른 곳 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0	1	2	104	유난히 소란스럽다.	0	1	2
83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많이 모아 둔다.(구체적내용:)	0	1	2	105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술이나 담배는 제외) (구체내용:)	0	1	2
84	비정상적인 이상한 행동을 한다. (구체적내용:)	0	1	2	106	기물이나 시설을 부순다.	0	1	2
85	비정상적인 이상한 생각을 한다. (구체적 내용:)	0	1	2	107	낮에 오줌을 옷에 싼다.	0	1	2
86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낸다.	0	1	2	108	잠자리에오줌을싼다.	0	1	2
87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109	징징 우는 소리를 한다.	0	1	2
88	자주 부루퉁해진다.	0	1	2	110	(남자인경우) 여자가 되고싶어한다. (여자인경우) 남자가 되고싶어한다.	0	1	2
89	의심이 많다.	0	1	2	111	위축 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112	걱정을 한다.	0	1	2
91	자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0	1	2		위에 적힌 문제 외에 댁의 자녀가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2	잠자면서 걸어 다니거나 이야기를 한다. 구체적내용:( )	0	1	2	113	1)	0	1	2
						2)	0	1	2
93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3)	0	1	2
94	남을 잘 놀린다.	0	1	2	114	알레르기	0	1	2
95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0	1	2	115	천식이 있다.	0	1	2
96	성(sex)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0	1	2	116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한다.	0	1	2
97	남을 위협한다.	0	1	2	117	먹어서 안 될 것(흙, 종이 등)을 먹거나 마신다.	0	1	2
98	손가락을 빤다.	0	1	2	118	대변을 가지고 뭉게 거나 장난친다.	0	1	2
99	담배를 피운다.	0	1	2	119	정리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쓴다	0	1	2